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56호 【루계 제24669호】 주체103(2014)년 9월 13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선물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선물을 보내시였다.

백두산3대장군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공장에 궁궐같은 로동자합숙을 보란듯이 일떠세워주시고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번에 로동자들을 위한 통근뻐스들을 선물로 보내시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12일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안정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차희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박문호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선물전달사가 있었다.

연설자는 공장종업원들의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교대작업을 하는 방직공들의 출퇴근까지 헤아리시여 사랑의 뻐스들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친어버이사랑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물에는 방직공들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것을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이 어려있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날을 따라 더해만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에 높은 생산실적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모임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오늘의 이 영광과 행복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든 일터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와 영예를 빛내이며 생산돌격전에 과감히 떨쳐나설것이라고 말하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활동에서 구현되여야 한다는 철리를 좌우명으로 삼고 다추, 다기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맡겨진 생산과제를 제기일에 무조건 완수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공장과 일터를 선군시대의 본보기로 더욱 훌륭히 꾸리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뻐스들을 잘 관리하여 방직공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대고조격전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5월1일경기장개건공사를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5월1일경기장개건공사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의 체육중시사상을 받들고 돌격대에 탄원한 평양시제1인민병원 의사 김향숙, 평양시위생방역소 의사 박명광은 전투현장에서 예방치료와 물심량면의 지원으로 건설자들을 위훈창조에로 고무하고있다.

김만유병원 간호원 박은옥도 현장의료봉사활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군인들의 생활을 친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돌봐줌으로써 대중의 존경을 받고있다.

지난 기간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여온 해방산호텔 로동자 박인선은 공사초기부터 야간지원돌격대에 망라되여 로력투쟁에 헌신하고있으며 원군사업에서도 앞장서고있다.

모란봉구역 서흥소학교 교원 조금단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면서 들끓는 전투장에 달려나가 군인건설자들에게 원호물자를 안겨주고 선동사업도 벌려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중요대상건설장들마다에서 선군청년전위의 본분을 다하여온 민주조선사 로동자 김은화는 5월1일경기장개건공사도 성심성의로 도와주고있다.

체신성 산하단위 로동자들인 조림영, 김영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건설자들을 통이 크게 지원하여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군사복무로 청춘을 빛내인 긍지를 언제나 소중히 간직하고 대외건설지도국 중기계사업소 로동자 리국화는 공사에서 혁명군대의 본때를 보이고있는 군인들을 여러차례 원호하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상업성 산하단위 로동자 박향란은 당의 뜻을 받들고 공사장에 달려나간 첫날부터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면서 건설자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였다.

의학과학원 약학연구소 연구사 박철남, 청류관 로동자들인 리은아, 정현정은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 강성국가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심장깊이 새기고 로력적, 물질적지원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신 감사를 무한한 감격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더욱 헌신할 결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업적토론회
여러나라에서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업적토론회가 뻬루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에티오피아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 콜페지부, 리데타지부, 키르코스지부, 아라다지부, 굴랄레지부, 예까지부소조들, 인도네시아 아디따 아리야쁘라위라선박회사, 라비뜨라 바흐떼라 쁘라따마회사에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뻬루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위원장을 비롯한 토론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강화발전시키시여 사회주의보루로 빛내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앞으로도 영원히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떨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에티오피아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 콜페지부소조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인민이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는 김일성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다.

그이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근거지에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한 력사적경험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1948년 9월 9일 동방에서의 첫 인민민주주의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그로부터 2년도 못되여 일어난 조선전쟁에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전후복구건설과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인도네시아 라비뜨라 바흐떼라 쁘라따마회사 사장은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걸어온 력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령도자께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조선을 사회주의보루로, 반제자주의 성새로 강화발전시키신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지난 66년간 조선인민은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원칙을 굳건히 고수하였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령도밑에 원쑤들의 도전을 짓부시며 주체의 길, 선군의 길로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나이제리아, 로씨야인사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 로씨야인사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나이제리아국회 상원 의원 아흐마드 루파이싸니와 로씨야 니줴고로드주 스뜨로이오뜨젤까유한책임회사 총사장 에스. 아. 아바조브가 1일과 6일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하였다.

나이제리아국회 상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께와 그리고 조선인민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속에서도 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자주권수호를 위한 투쟁의 방향타를 굳게 잡으시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분이시다.

그이의 뛰여난 령도예술과 강인한 담력, 배짱에 매혹되여 소박한 선물을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실것과 위대한 조선을 이끄시는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실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

본사기자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굴진을 앞세워 석탄생산을 늘인다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킬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석탄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증산을 위한 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8월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드높이 9월에 들어와서도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예비채탄장을 더 마련하기 위한 굴진을 동시에 내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적극 늘이고 철도운수를 비롯한 교통운수문제를 결정적으로 풀며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에서 련대적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가야 합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대담하게 작전하고 실천하면서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련합기업소 책임일군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떨쳐나선 로동자들과 함께 일도하고 걸린 문제들도 풀어주면서 대중을 석탄증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석탄생산을 늘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련합기업소아래 보장단위들에서도 소갱들을 새로 개발하여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룡수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나가면서 예비채탄장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탄광의 1갱과 2갱, 3갱의 채탄중대들에서는 합리적인 채탄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석탄생산을 힘있게 내밀어 매일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1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이달에도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할 드높은 열의안고 막장마다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이들은 자체의 힘으로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매일 많은 석탄을 생산하고있다.

2갱과 3갱의 채탄중대들에서는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이곳 갱들에서는 더 요구되는 동발나무를 자체로 해결하면서 예비채탄장을 마련하여 날마다 생산실적을 올리고있다. 이 갱들의 굴진소대들에서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갱목과 레루를 자체로 해결하면서 굴진전투를 줄기차게 벌려 지난 몇달동안에 200여m의 굴진을 진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룡수탄광의 막장들에서는 갱, 채탄중대, 굴진소대들호상간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석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련합기업소의 보장단위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석탄증산에 이바지할 불타는 애국의 마음안고 소갱들을 개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 지난 8월에만 하여도 1 500여t의 석탄을 캐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소갱들을 개발하여 석탄생산에 이바지하고있는 이들의 모범을 널리 소개선전하면서 대중을 석탄증산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은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여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려는 애국열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생산돌격전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석탄생산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석탄생산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생산을 다그치고있다. —평양양말공장에서—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광물생산에서 련일 혁신
혜산청년광산에서

혜산청년광산의 로동계급이 8월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광물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이 자랑찬 성과는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될 광산로동계급의 애국적헌신성이 낳은 귀중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광산의 당일군들은 사상의 무기를 메고 모든 갱막장들에 들어가 생산자대중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렸다.

계획수행기간 광산참모부에서는 모든 갱의 중단채굴장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광과제를 명확히 주고 일별, 교대별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술적요구에 맞게 작업조직을 빈틈없이 하고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짜고들도록 하였다.

또한 광산에서는 천공속도와 운반능력을 훨씬 높이고 각종 전동삽차들과 광차들의 실동률을 부단히 높여 다량락광, 다량채굴, 다량운반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선광직장의 기술자, 로동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선광설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갱신하면서 자검자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교대당점검보수를 책임적으로 하여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만부하를 걸수 있게 하였다.

콘베아갱, 마산운반갱에서는 광석운반과 선광공정간 련계를 긴밀히 하여 광산앞에 맡겨진 계획수행에 기여하였다.

배수갱의 로동자들은 집체적지혜와 힘을 합쳐 맡겨진 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발파대의 발파공들은 암질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발파방법을 받아들여 발파효률을 종전보다 훨씬 높이였다.

6월3일갱 리기룡제대군인굴진소대, 채평석채준소대, 8월26일갱 리영국제대군인채광소대가 계획수행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운수직장의 자동차운전사들과 공무동력직장의 로동자들은 수송과 갱내설비보수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켰다.

광산의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치고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리용하여 광산의 8월계획수행에 크게 한몫하였다.

광산당조직에서는 로동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와 혁신자축하모임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광산의 전투적인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전철주

가을누에치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황해남도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잠업도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오늘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잠업이 차지하는 역할은 자못 크다.

뜻깊은 올해에 고치생산을 늘여 비단폭포가 쏟아지게 해야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더욱 원만히 풀수 있다.

이것을 자각한 황해남도의 잠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책임감을 안고 가을누에치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해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의 잠업부문 일군들은 도에 맡겨진 고치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특히 정치사업을 앞세워 이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가을누에치기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해나가도록 하고있다.

도의 잠업부문 일군들이 책임성을 높이고있다. 일기조건과 지대적특성에 맞게 고치생산사업소들에 누에알을 제때에 공급한 일군들은 잠업작업반들을 맡고나가 누에고치생산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따라세우고있다. 특히 모범적인 단위들을 내세우고 공정별기술적지도와 자재보장을 잘하여 계획수행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고있다.

도의 잠업부문 근로자들이 가을누에치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있다.

그 앞장에 은천고치생산사업소와 삼천, 태탄, 옹진군의 고치생산사업소들이 섰다. 누에고치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가을누에치기에 들어간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풀어나가면서 누에치기를 잘해나가고있다.

배천, 재령, 신천군을 비롯한 도의 다른 군들의 고치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뽕밭의 지력을 높여 정보당 뽕잎생산을 늘일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누에치기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이들은 자기앞에 맡겨진 가을누에고치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해 누에의 영양관리와 누에칸소독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가을누에치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맞게 도의 잠업부문 일군들이 현지에 나가 누에가 습기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야외가설막주변에 물도랑을 내고 밤기온이 내려가는데 맞게 보온대책을 세우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누에를 치는 근로자들이 여러가지 첨가제를 뽕잎에 섞어먹여 누에들의 영양상태를 좋게 하도록 기술지도를 실속있게 하고있다.

도에서는 누에치기에서 이룩된 좋은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해주시당위원회와 각 군당위원회들의 지도밑에 고치생산단위들에서는 조직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 누에고치생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고있다.

도의 잠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에서는 고치생산계획을 수행할수있는 담보가 마련되고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인민들의 정신도덕적풍모는 수령의 풍모를 닮아가며 당의 정치를 따라가게 됩니다.》 김정일

조선의 참모습, 필승불패의 상징

한 나라, 한 민족의 전도와 운명을 결정하는데서 국력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시할수 없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다. 그것은 사회의 륜리도덕이다.

인간사회에 도덕이 있는것은 물에 제방이 있는것과 같다고 하였다. 제방이 있어야 물이 형체를 유지하는것처럼 사회에 건전한 륜리도덕이 지배해야 사회발전의 기초인 질서도 단결도 화목도 유지된다는 뜻이다. 제방이 무너지면 물이 쏟아지는것처럼 도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며 하기에 력사는 정치우에 도덕이 있다는 말도 전하는것이다.

조선혁명은 인간도덕을 높이 내세우고 중시하는 위대하고 숭고한 혁명이며 그 전과정자체가 한없이 고결한 도덕의리의 력사이다. 이 세상에 자기의 혁명력사를 숭고한 도덕의리의 력사이라고 자랑스럽게 부를수 있는 인민은 오로지 우리 인민밖에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찌기 가르치신것처럼 우리 혁명이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하는 근본요인의 하나가 바로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숭고한 도덕의리에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사회주의도덕건설의 새로운 력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핵으로 하는 사회주의도덕을 창시하시고 구현하심으로써 가장 숭고한 경지에 이르게 되였으며 그것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더욱더 빛나고있다.

우리 인민과 세상만민은 그 위대한 상징, 제일상징으로 금수산태양궁전을 꼽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가는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할뿐아니라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닌 참다운 인간적풍모의 소유자로 되여야 합니다.》

혁명가들의 도덕의리는 인민의 자유와 나라의 자주독립,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피와 땀을 바치고 위훈을 세웠으며 귀중한 업적을 쌓은 앞선 세대 혁명가들에 대한 존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혁명선배의 최고대표자인 수령을 높이 받들어 모시는데서 최고로 표현된다.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

건국의 위대한 어버이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열화같은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에 의하여 태여나고 선대수령들에 대한 가장 고결한 충정심과 도덕의리심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그 모습 더욱 빛나고있는 태양의 성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이 오늘 태양의 성지로서의 웅자와 품격을 보다 완벽하게 갖추고 우리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 승리의 상징이 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힘있게 선도하는 기치로 더욱더 빛을 뿌리고있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결한 충정심과 도덕의리심을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고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만민으로부터 받고계시는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을 절감하게 하는 혼장보존실과 사적물들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정갈하고 희한한 잔디밭과 화초밭, 분수와 휴식구들이 펼쳐진 궁전광장공원의 아름답고 숭엄한 모습과 궁전정면 옷부분의 국장, 궁전광장주석단 아래벽의 대원수별을 가슴에 새기면서 사람들은 어찌하여 그처럼 격정에 넘치는것인가. 금수산태양궁전 내부에 정중히 모셔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사진문헌들을 우러르면서 눈굽을 적시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절세의 위인들의 위대성을 더욱더 절감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자신들이 더욱 가까와지며 어버이수령님과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이 백배로 굳어지는 속에 사무치게 느끼게 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충정과 도덕의리 바로 그때문이 아니던가.

혁명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도덕의리의 의미가 가장 숭엄하게 부각되고 인류도덕의 불멸의 구감이 빛을 뿌리는 금수산태양궁전의 새 모습에서 인민들은 선대수령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의 완벽한 체현자이시고 위대한 창조자이신 우리 원수님의 열화같은 충정의 세계를 가슴뜨겁게 느끼고있으며 원수님께서 길이 꽃피워가실 고결한 도덕의리의 대화원, 내 나라, 내 조국의 희망찬 래일을 그려보는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는 모를것이다. 금수산태양궁전의 새로운 모습 하나하나에 깃든 우리 원수님의 정성이 얼마나 극진하고 바치신 로고가 얼마나 큰것인가를.

금수산태양궁전의 정면 옷부분에 국장이 새겨지고 궁전광장주석단 아래벽에 대원수별이 새겨지게 된것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발기에 의한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100일을 앞두고 금수산태양궁전의 외부를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참으로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은 대원수님들께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로서 우리 공화국의 영상이나 같은것만큼 궁전정면 옷부분에 국장을 새겨놓아야 한다고, 금수산태양궁전광장주석단 아래벽에는 대원수별을 새기고 궁전정면에 수령님과 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시며 그우에 국장을 새겨놓고 국기를 띄우도록 하여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일군들은 대원수님들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고 대원수님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한없는 충정심과 거룩한 의지에 깊이 머리를 숙이였다.

우리 조국을 상징하는 국장, 그것을 금수산태양궁전에서 보며 우리 인민들과 세상사람들은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시고 령도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업적을 더 깊이 새기게 될것이며 다름아닌 금수산태양궁전에 빛나는 국장으로 하여 우리 나라가 바로 김일성, 김정일조선이라는것이 보다 강조될것이였다.

또한 궁전광장주석단 아래벽에 빛날 대원수별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선군업적과 불패의 강국의 모습을 더욱 찬연히 상징할수 있는것이였다.

금수산태양궁전 외부의 새로운 장식을 어찌 절세위인의 독창적인 건축미학사상의 결과로만 볼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 조국을 이끄시고 빛내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업적을 잊지 못하시며 대원수님들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려는 그이의 불같은 충정심의 정화가 아니겠는가.

혼장보존실과 사적물보존실이 새로 꾸려지고 방들과 복도량쪽벽들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오늘 금수산태양궁전이 층층의 칸칸마다 절세위인들의 체취와 업적이 꽉 들어찬 태양의 성지로서의 품격을 보다 완벽하게 갖추게 된데도 그리고 무게가 있고 예술적품위가 있는 사진문헌액틀들과 궁전내부의 벽과 바닥에 불인 대리석 하나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런 지극한 정성과 세심한 지도가 깃들어있는것이다.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신 태양의 성지이며 우리 인민들만이 아니라 전체 조선민족이 마음속에 소중히 안고 사는 성스러운 태양의 집이라고 하시면서 궁전의 광장에 나무와 꽃들을 많이 심도록 하시고 궁전의 록지구역에 손수 잔디씨까지 뿌리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금수산태양궁전에는 온갖 꽃이 만발하는 대화원, 아름다운 공원도 펼쳐지게 되였다.

만민이 우러르며 경탄하는 금수산태양궁전,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충정의 력사에 높이 솟아 빛나는 도덕의리의 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령도자로 모심으로 하여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창조한 혁명적도덕의리의 새로운 귀감을 보여주고있으며 인류도덕을 대표하는 사회주의도덕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만민에게 새겨주고있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잘 교양하여 그들이 모두 혁명선배들을 존중하는 전통을 확고히 세워놓으면 우리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꿋꿋이 계승되여나가게 될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혁명선배들에 대한 도덕의리의 계승이자 혁명의 계승이며 도덕의리의 절정에서 혁명의 최후승리를 내다볼수 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생의 모습으로 최대의 충정속에 높이 받들어모신 금수산태양궁전은 조선의 참모습으로서 우리 혁명의 필승불패성과 그 요인을 세상에 과시하고있다.

본사기자 박 철

위인과 례의

인격을 존중할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상대방의 언행을 놓고 자기에 대한 그의 태도를 판단하며 기본은 말하는것을 보고 분석평가한다. 말버릇에 사람의 수양정도와 품행이 비끼고 말버릇에 따라 인격이 오르내린다. 직무나 직위에 인격이 있는것이 아니며 얼굴이 잘나서 인품이 오르는것도 아니다. 말버릇이 단정하면 존경을 받고 반대로 거치르고 사나우면 존엄과 품격을 잃게 된다.

사업과 생활에서 항상 례의를 중시하시고 단정한 말버릇을 찬양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반말질을 하고 행동을 거칠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말을 한번 주고받아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주면서 례절있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군 하시였다.

말버릇이 없는것을 성격상문제나 습관상문제로가 아니라 사상과 도덕수양에 관한 문제로 보시였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문화성없이 거치르게 말한것을 두고 인격을 무시하고 신성한 회의를 모독한 란폭한 행위로, 당의 권위에 흙칠을 한 행동으로 여기시며 엄하게 비판하시였고 반말질하는 현상과 관련해서는 자기의 인격 그자체는 더 말할것도 없고 사업상권위도 보장하지 못하며 요구성도 높일수 없게 된다고 강조하시였던것이다.

말버릇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일상적이며 세심하신 관심과 간곡한 가르치심에는 인간의 존엄과 인격을 존중하고 지켜주시는 거룩한 사랑, 우리 인민모두를 혁명가다운 아름답고 고상한 인품의 소유자로 키워나가시려는 숭고한 의지가 담겨있었다.

선배를 아낄줄 알아야 한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예술단체에서 배우들이 자기들보다 나이상으로나 경력상으로 볼 때 대비조차 되지 않는 한 오랜 작곡가에 대하여 크지 않은 결함을 가지고 시비하고있다는것을 아시고 엄격한 지적의 말씀을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이 자기가 성장하여온 과정을 다시 상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란 결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 결함은 다 있습니다, 그 결함을 고쳐주는것이 동지입니다, 동무들이 지금 당의 신임을 받고 롱마를 탔다고 우쭐해져 자기 선배도 몰라보는것 같은데 그러면 안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 그 작곡가가 지은 노래에 대하여 알려주시면서 그가 이미 10여년전에 그 노래를 작곡한 동무이라는데 대하여 상기시키시였다.

이어 선배를 아낄줄 알아야 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동지적으로 도와주고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피바다》에 나오는 《싸리나무 한가치는 꺾기 쉽지만》이라는 노래에 있듯이 동지적으로 단합해서 예술창조사업에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라고 타이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융합되고 단결하여야 훌륭한 무적의 힘을 발휘할수 있고 훌륭한 작품이 나올수 있다고 하시면서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에서 배우들은 커다란 량심상가책을 받았고 혁명선배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태도를 스스로 검토해보게 되였다.

본사기자

혁명가의 미덕

1980년대말-1990년대초 진보적인류는 가슴아픈 일을 목격하게 되였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비극적사태가 초래되였던것이다.

거기에는 혁명하는 나라들이 명심하여야 할 혁명의 승패와 직결된 심각한 문제가 배태되여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누구도 그에 대하여 력사적으로, 론리적으로 까밝히지 못하고있었다. 바로 그러한 때 사회주의의 전도를 우려하는 혁명가들과 진보적인류를 깨우치는 종소리가 지구를 뒤흔들었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였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84(1995)년 12월 25일 《로동신문》에 발표하신 담화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는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고 혁명을 대를 이어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하게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가를 새겨줌으로써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고귀한 지침으로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진정한 혁명가라면 누구나 혁명선배들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혁명가로서의 영예와 존엄을 지키고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길입니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당과 국가의 지도적지위를 차지한 기회주의자들에 의하여 혁명선배들을 모독하고 그들의 업적을 말살하는 배신행위가 감행됨으로써 혁명가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회주의의 영상이 흐려졌으며 끝내는 사회주의제도자체가 허물어지게 되였다는 절세의 위인의 명철한 분석과 정확한 결론은 혁명선배들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세우는것이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심각하게 깨우쳐주었다.

력사는 혁명가의 미덕중의 미덕이 혁명선배들에 대한 존대이며 혁명선배를 몰라보면 혁명을 망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지기 오래전인 수십년전에 벌써 어느 한 사회주의나라에 대하여 그 나라가 자기를 견지하지 못할수 있다고 예언하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예견하신대로 현대수정주의가 대두한 그 나라에서는 수령과 혁명선배들을 헐뜯고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외곡변질시키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졌으며 사회주의의 력사적업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말살한 배신자들에 의하여 종당에는 사회주의국가가 붕괴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멸의 로작에서 그것은 제국주의의 압력에 굴복하여 혁명을 배반한 가장 비렬한 반혁명적죄행이며 혁명적의리를 저버리고 초보적인 인간도덕마저 짓밟은 가장 비도덕적인 배신행위라고 지적하시였다.

혁명은 사상으로 하며 도덕의리로 한다. 참다운 혁명가들은 수령과 혁명선배들에 대한 도덕의리를 지키는것을 생명으로 간주한다.

참된 혁명가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도덕과 례의를 중시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사람으로서 응당 지켜야 할 례절을 지킬줄 모르고 버릇없이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덕이 없고 수양이 부족하며 씨가 여물지 않았다는 생활적인 표현으로써 그의 인간됨을 평가하군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간의 최고미덕을 수령에게 충실하고 혁명적도덕의리를 지키는데서 찾으시였으며 그런 인간을 참으로 값있는 인간으로 여기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슬하의 한 전사가 세상을 떠난데 대하여 회고하시다가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 사람은 언제나 사령부를 수호하다가 죽겠다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사령부를 수호하다가 자기 한목숨을 바쳤습니다. 바로 우리곁에서 말입니다.

그러시고 그를 두고 천금을 주고도 바꿀수 없는 인간이였다고 하시면서 사람은 금새가 비싸게 나가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시였다.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고 믿음과 사랑을 부어주신 자기 령도자에 대한 도덕과 의리를 목숨바쳐 지키고 간 일군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추억과 높은 평가는 혁명가의 제일미덕이 혁명선배의 최고대표자인 수령에 대한 충정과 의리에 있으며 거기에 인간의 진짜가치가 있음을 깊이 새겨주고있다.

온 사회에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기풍이 차넘치게 하시여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우리 장군님은 참으로 위인중의 위인이시였다.

본사기자

◁수 필▷

영원한 푸른 시절

《철령아래 사과바다》, 《그리움의 하얀 쪽배》, 《내 심장의 목소리》, 《고백》…

최근 모란봉악단이 신작음악회무대에 올린 작품들이 온 나라에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그중에는 《세월이야 가보라지》라는 노래도 있다. 제목부터가 특색있고 주제도 새로우며 가사도 곡도 다 독특하여 세상에 나오자마자 인민들의 절찬을 받고있다.

선률은 얼마나 흥취나고 구절구절 가사는 얼마나 뜻이 깊은가!

《봄시절은 멀리 흘러 우리 인생 가을인데》 하고 노래를 따라부르느라면 누구보다 이 노래를 좋아하고 즐겨부를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로세대들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갈마든다.

이 땅의 로세대,

조국과 후대들을 위해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따라 천만리 력사의 폭풍우를 헤치며 혁명의 먼길을 걸어온 우리의 혁명선배들,

누구보다 피를 많이 흘리고 땀을 많이 뿌리였고 고생을 많이 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세대!…

지금도 그들의 가슴을 헤치면 혁명만 하면 그만이라며 풀뿌리도 달게 씹고 사선도 웃으며 넘은 준엄한 그 시절이 생생히 살아있을것이고 쓰러진 전우들앞에 쏟았던 전장의 눈물도 아직 남아있으리라. 재더미에 복구의 첫삽을 박고 눈보라속에서 해진 신발을 신고 아이들의 운동화를 생산할 공장도 세우며 자신의 모든것을 조국의 미래 오로지 거기에만 얹던 그 년대도 고이 살아숨쉬리라.

오늘까지도 묵묵히 가슴에 묻어둔 위훈은 또 얼마일것인가. 후대들에게 다 말 못한 고난과 시련의 이야기는 추억의 갈피마다에 깃들어있으리. …

시대의 명곡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서정적주인공은 그러한 우리의 혁명선배들로서 이제는 인생의 가을에 사는 세대이다. 허나 《검은머리 희였어도 그 시절이 푸르르오》라고 그들은 어찌하여 그리도 격조높이 읊조리는것인가. 《황혼기도 청춘이니 세월이야 가보라지》라고 터치는 생의 랑만과 락관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것일가. 어찌하여 버들방천에서 나누었던 첫사랑도 그처럼 소중히 추억하는것이며 얼굴의 깊은 주름도 떳떳하게 여기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들과 공로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적극 내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정치이며 우리 사회의 고상한 기풍입니다.》

아무리 피흘리며 싸웠다고 해도 그 보람이 없고 기꺼이 바치였다고 하여도 그 삶이 빛나지 않는다면 흘러간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가슴 허전할것인가.

한편의 새 노래가 그리도 전세대들의 마음에 파고들고 감격의 눈물마저 자아내는것은 이 땅엔 그런 비탄과 여한이 없기때문이다. 어제도 오늘도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 시대에 살고 혁명을 한 보람과 긍지가 세월이 갈수록 커가기때문이다.

노래란 생활의 목소리이고 시대의 모습이다.

이제는 항일의 로투사들이 몇분 남지 않았는데 아무쪼록 건강관리를 잘하여 오래오래 앉아계셔야 한다고, 투사동지들이 옆에 앉아만 있어도 자신에게는 힘이 된다고 하시며 끝없는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영광의 세월을 보내는 혁명의 전세대들의 긍지를 한편의 노래가 다 전하고있는것이다. 자신께서는 전쟁로병들을 도덕의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귀중히 여긴다고 하시며 전쟁로병들이 한사람, 한사람 줄어들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전쟁로병들을 아끼고 잘 대우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는 우리 원수님의 은정속에 여생을 꽃피우는 행복도 노래의 선률과 가사에 가득히 실려있다.

그렇다. 인생의 로년기가 혁명년조로 찬양되는 우리 사회, 생활의 순간마다 혁명선배들의 공훈을 잊지 않는 시대를 전세대들은 노래하고있다. 투쟁으로 시작한 삶을 투쟁으로 값높이 마무리해주고 인생의 황혼기도 청춘기로 빛내여주시는 우리 원수님의 품을 소리높이 노래하고있는것이다.

진정 누구인들 은혜로운 그 품에 맡긴 생을 아름다운 봄시절에 비하지 않을것인가. 우리 당이 준 삶의 활력으로 싱싱하고 억세인 로년기를 왜 인생의 푸르른 시절이라 말하지 않겠는가.

이 땅, 이 하늘아래에만 있는 전세대들의 푸른 시절, 절세위인의 품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앞날에도 꽃피여날 영원한 그 시절을 우리 시대, 우리 생활은 온 세상에 자랑하고있다.

《세월이야 가보라지》라고 하며!

본사기자

우리 식이 제일이라고 하시며

회고록학습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평양인쇄공업대학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세기적변혁과 강성번영하는 선군조선에 펼쳐진 자랑찬 현실은 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주의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주체65(1976)년 1월말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로 건설하게 될 어느 한 대상의 설계도면을 보아주시던 때의 일이다.

일군들이 올린 도면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며 이따금 가볍게 수긍해주기도 하시고 부족점에 대하여 세세히 가르쳐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도면의 한 부분에서 눈길을 멈추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유심히 들여다보시는 곳은 건물의 바닥을 설계한 부분이였다.

도면을 설명해드리던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 이 부분에는 쪽무이널바닥을 하려고 계획하였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그러지 말고 인조석미장을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한 일군이 위대한 장군님께 지금까지 고급건물들에는 모두 쪽무이널바닥을 하여왔다고 조용히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근엄한 어조로 쪽무이널은 어디까지나 우리 식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건물의 바닥은 우리 나라에 많은 돌로 우리 감정에 맞게 합시다, 우리 식으로 말입니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고 일군들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들이 쪽무이널바닥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야 없지 않는가, 이 건물의 바닥은 우리의 감정과 정서에 맞게 해야 하며 그러자면 우리가 좋아하는 갖가지 아름다운 문양을 넣어서 우리 나라에 흔한 돌을 가지고 인조석미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선행한 건축리론이나 건축물창조경험이 어떠하든지간에 우리가 창조하는 건축물은 철저히 우리 식으로 건설되여야 한다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의지가 얼마나 뜨겁게 비껴있는것인가.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있는 일군들을 정겹게 둘러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조석미장을 무슨 돌로 했으면 좋겠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이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리석, 옥돌 하고 혼자말씀으로 되이시더니 건물의 바닥에 대리석을 깔아볼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그보다 옥돌로 인조석미장을 하는것이 더 좋을것 같다고 하시면서 옥돌로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설계도면의 여기저기를 손수 짚어가시면서 어디에는 무슨 꽃문양을 넣고 또 어디에는 어떤 색갈을 넣으라고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조석으로 바닥을 처리하면 빛이 날수 있으니 마음먹고 한번 잘 해보라고 일군들을 거듭 고무해주시였다.

일군들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공사를 진척시키였다.

인조석으로 바닥을 장식하니 쪽무이널바닥과는 대비도 되지 않았다.

우리 인민들의 생활감정과 정서, 시대적미감에 맞게 그리고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여러가지 아름다운 문양을 넣어 시공된 건물의 바닥은 말그대로 하나의 훌륭한 예술작품인듯싶었다.

일군들로부터 바닥공사가 끝났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공사현장을 찾으시였다.

건물안에 들어서시여 인조석으로 시공한 바닥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쁨에 넘쳐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괜찮습니다. 이것을 다른 나라 식인 쪽무이널바닥에 비하겠습니까. 우리 나라의 돌로 우리 감정에 맞는 문양을 넣어서 시공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하나의 예술작품입니다. 우리 식이 제일입니다. …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짓고계시는 절세위인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자기의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열렬한 애국심에 위대한 창조의 원천이 있다는 철리를 더욱 심장깊이 새겨안았다.

본사기자 정순학

시대의 숨결, 민족적흥치가 넘쳐나는 매력있는 명곡

노래 《철령아래 사과바다》를 들으며

지난 9월 3일에 진행된 모란봉악단의 신작음악회무대에 오른 새 노래들은 지금 인민들의 열렬한 절찬을 받고있다. 특히 선군절을 맞으며 태여난 시대의 명작 《철령아래 사과바다》는 이번 신작음악회무대를 참으로 특색있고 의의있게 장식하였다. 신작음악회에 참가했던 관람자들뿐아니라 음악회를 텔레비죤으로 시청한 사람들모두가 《철령아래 사과바다》야말로 들을수록, 부를수록 희한하고 매력있는 명곡이라고 한결같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주체103(2014)년 8월 24일 선군절전야의 《로동신문》 3면에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진 고산과수농장의 과수바다전경을 배경으로 큼직하게 실린 노래 《철령아래 사과바다》의 가사와 악보를 처음 받아안을 때 인민들의 충격은 참으로 컸다.

의의있는 기념일들과 더불어 태여난 노래들도 많다. 선군의 상징 철령에 대한 노래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올해의 력사적인 선군절을 이채롭게 빛내여준 노래 《철령아래 사과바다》를 류다른 격정과 흥분속에 받아안았다. 선군절을 맞으며 나온 노래라면 의례히 숭엄한 송가풍의 음악이나 씩씩한 군가를 생각하던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들으면 절로 흥치가 나고 부르면 어깨가 들썩이게 하는 건드러진 민요풍의 노래가 태여났던것이다.

노래는 신비할 정도의 감화력을 분출하면서 순간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금을 틀어잡았고 사람들은 너도나도 이 노래를 부르며 선군절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겨안았다.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정서로 우리 당정책을 옹위하고 선전하는 훌륭한 명곡 《철령아래 사과바다》를 받아안은 사람들은 누구나 흥분에 겨워 말하고있다.

《내 조국 그 어디에나 어려있는 우리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자욱에서 피여난 아름다운 명곡》, 《선군의 힘으로 부흥하는 내 조국의 찬가》, 《민족의 향취, 선군의 향기를 후련히 느끼게 하는 노래》, 《흥치나고 매력있는 우리의 민요가 정말로 제일이다.》…

뜻깊은 선군절을 경축하는 음악축포와도 같이 눈부시게 터져오른 노래 《철령아래 사과바다》의 메아리는 공화국창건 66돐을 맞는 내 조국의 푸른 하늘을 더더욱 아름답게 빛내여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상이 없이 감정이 생길수 없고 사상과 감정이 없이 정서가 나올수 없는것만큼 자주적이며 혁명적인 사상과 고상한 정신에서 출발하지 않고서는 시대의 정서가 차넘치는 음악이 나올수 없다.》

인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련관을 맺고있는 가요의 창작에서 시대정신의 민감한 반영과 인민의 감정정서의 진실한 구현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노래 《철령아래 사과바다》는 젊음으로 약동하고 비약하며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변을 일으키고있는 선군조선의 위대한 현실을 시대의 감정정서에 맞는 시음악적형상으로 생동하게 반영함으로써 현시기 당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는 명작창작의 원칙적요구를 가장 훌륭히 구현하였다. 그리하여 이 노래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비상한 견인력과 감화력을 가지고 만사람의 심금을 세차게 흥분시키면서 명랑하게 울려퍼지고있다.

노래 《철령아래 사과바다》가 인민들속에서 그처럼 열렬한 절찬을 받고있는것은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 당의 위대한 선군령도에 의하여 전변이 일어나고있는 내 조국의 자랑찬 현실, 선군의 길이 곧 번영의 길, 행복의 길이라는 진리를 자기의 생활로 받아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감정을 훌륭한 예술적형상으로 반영하였기때문이다.

고난의 행군길을 헤쳐오던 그 나날에 미처 다는 몰랐던 선군의 깊은 뜻을 오늘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눈부신 현실속에서 뼈에 사무치게 절감하고있다.

선군장정의 멀고 험한 길을 돌이켜보는 추억의 갈피마다에서 우리의 눈앞에 제일먼저 떠오르는것은 선군의 상징과도 같은 철령이다. 눈이 오고 비바람 몰아쳐도 넘고 넘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철령길을 우리 얼마나 많이도 가슴뜨겁게 노래해왔던가. 그 잊을수 없는 철령아래 펼쳐진 선군시대의 청춘과원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선길에 이어 찾고찾으실 때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철령과 사과바다, 높고높은 선군의 령봉과 바다처럼 넓은 행복의 무릉도원!

노래 《철령아래 사과바다》는 선군의 위력으로 나날이 풍요해지는 조국의 모습을 가슴후련하게 구가할수 있는 가장 의의있고 상징적인 시음악적대상을 정확히 선택하였다.

고산과수농장의 절경은 선군13경으로 우리 조국청사에 눈부시게 기록되여있다. 철령기슭에 펼쳐진 청춘과원이야말로 위대한 선군정치의 생활력, 오늘날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행복의 뿌리와 열매에 대하여 한편의 노래로써도 마음껏 구가할수 있는 풍요하고 기름진 예술적형상의 무대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그처럼 많이 넘고 또 넘으시던 철령에 깃든 가지가지의 눈물겨운 사연들, 그 만단사연이 꽃피운 행복의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전하기에는 저 하늘이 작은것만 같고 천년세월이 짧은것만 같았던 심정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늘 이 노래에 담아 다시한번 후련히 터쳐놓았다.

마치 총대와 꽃이 하나로 어울린것처럼 극적인 대조를 이루면서 형언할수 없는 예술적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명곡은 제목에서부터 깊은 철학적의미와 예술적형상의 극성이 진하게 안겨온다. 마디마디 뜻이 깊고 구절마다 생활을 담은 훌륭한 시어들을 통하여 노래는 우리 장군님의 피어린 선군의 력사와 부흥하는 내 조국의 오늘이라는 심오한 주제를 제기하고있으며 그에 대한 완벽한 사상예술적대답을 주고있다.

전선지대 무릉도원 그림같이 황홀하다는 1절의 구절들과 철쪽꽃 핀 철령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에 천만송이 사과꽃이 움터나는 청춘과원이라는 2절의 가사내용은 그 의미가 얼마나 깊은것인가. 더우기 노래는 1절에서 선군13경으로 온 세상에 알려진 고산땅의 풍경을 《전선지대 무릉도원》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형상으로 파고듦으로써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번영의 새 력사를 창조해가는 우리 조국의 모습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섬세하게 그려낼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3절에서는 행복의 터전에서 애국의 성실한 땀을 바쳐가는 청춘과원의 주인들의 모습을 《사과바다 물결우에 춤을 추는 갈매기냐 사과따는 처녀들의 꽃수건도 한들한들》, 《고산땅이 꺼지도록 파일대풍 안아오세》와 같이 생활적인 시어들에 담아 명쾌하게 노래하기도 한다. 이어 노래의 4절에서는 격정없이는 부를수 없고 눈물없이는 대할수 없는 구절들이 련이어 펼쳐진다.

…

철령아래 파일향기 차고넘쳐 목이 메냐
이 절경을 펼친 은덕 사무쳐와 목이 메네
장군님의 인민사랑 원수님이 꽃펴주신
예가 바로 부흥하는 예가 바로 부흥하는
내 조국의 모습일세

위대한 장군님께서 걷고걸으신 전선길에서, 우리 원수님께서 이어가시는 선군길의 자욱자욱에서 오늘은 인민의 만복이 꽃펴나고 행복의 열매가 주렁지고있으니 그 은덕을 노래하는 이 나라 아들딸들의 심정을 무슨 말로 표현할수 있으랴. 기쁨만이 아닌 격정, 눈물속에 받아안는 환희…

하기에 《철령아래 파일향기 차고넘쳐 목이 메냐 이 절경을 펼친 은덕 사무쳐와 목이 메네》라는 구절을 외우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장정의 험난한 길을 걸으시며 씨앗을 묻고 가꾸어주신 풍요하고 아름다운 내 조국의 무릉도원들과 절경들을 한가슴에 안아보게 되는것이다. 선군의 상징인 철령과 그 기슭의 사과바다를 형상의 소재로 선택하였기에 노래는 그토록 거대한 전형화, 일반화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었다.

정녕 노래 《철령아래 사과바다》는 한편의 훌륭한 예술가요이기 전에 우리 당의 위대한 애국애민의 선군력사를 길이 전하는 하나의 거대한 기념비와도 같다.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선군길을 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현실로 꽃피워 인민들에게 세상이 부러워하는 만복을 안겨주려는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그 눈부신 생활력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반영한데 당정책옹위가요로서의 이 노래의 첫째가는 생명력이 있는것이다.

이렇듯 심오한 사상과 가슴뜨거운 생활의 진리를 노래는 우리 인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민요풍의 선률에 담아 형상함으로써 완벽한 시대의 명곡으로 성공할수 있었다. 노래 《철령아래 사과바다》는 민족음악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당의 문예정책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한 훌륭한 본보기적작품이다.

부르기 쉽고 형식이 간결한 민요풍의 노래로서 민족음악의 고유한 민요조식에 기초하고 흥치나는 민족장단의 멋을 잘 살려낸 선률형상은 참으로 매력적이다. 안땅장단에 맞추어 흥겹고 락천적으로 흐르는 노래, 어깨를 들썩이며 스스럼없이 손장단을 치게 하는 《철령아래 사과바다》의 음악선률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수한 민족음악의 세계에 흠뻑 젖어들게 한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하신 절세위인들을 모신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선군태양의 축복속에 나날이 아름다와지는 위대한 조국에서 사는 기쁨의 감정이 그대로 선률이 되여 울리고있는 노래의 정서는 독특하다. 흥겹고 유쾌하게 흐르는 이 노래에는 아름다운 랑만의 감정도 있고 환희로운 기쁨의 감정도 있으며 격정을 담아 터치는 절절한 서정의 세계도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 진정한 삶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사랑의 씨앗을 뿌려주신 선군의 대지우에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속에 만복의 열매가 주렁졌으니 그 감격을 노래하는 인민의 감정도 이렇듯 환희롭고 희망찬것이다. 창작가들은 《바다 만풍가》처럼 인민의 로동당만세소리를 사람들모두가 좋아하는 민요풍의 곡조로 터쳐줌으로써 사과바다에 대한 새 노래 역시 인민들이 사랑하는 명곡으로 될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손길아래 마련된 행복의 일터에서 장군님의 은정을 길이길이 전해가며 로동의 참된 기쁨을 마음껏 누려가는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한 가요의 음악세계를 멋들어지고 건드러지게 형상해내는 가수의 노래솜씨도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노래 《철령아래 사과바다》를 통하여 민족장단과 선률의 고유한 맛을 다시금 절감하면서 사람들은 역시 민요가 흥치나고 매력이 있다고, 이런 멋진 명곡이 태여나게 해준 우리 당이 제일이고 우리의 사회주의가 제일이며 우리 음악예술이 제일이라고 감탄을 아끼지 않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서 민족음악을 적극 장려하고 현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켜 민족적정서와 향취를 더해주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민족음악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것은 결코 예술적취미나 음악창작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다. 민족음악을 사랑하는것은 민족의 우수성과 전통을 살려나가는 진정한 애국심의 발현이며 민족음악을 발전시키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회정치적문제이다.

오늘날 세계음악계에는 자기 민족의 전통과 력사가 깃든 민족음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특성을 살려 창조활동을 벌리는 예술인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창작가, 예술인들의 견해나 취미에 따르는 예술실무적인 경향에 지나지 않으며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한 부분적인 창조방식에 머무르고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민족음악이 국가음악발전의 튼튼한 바탕을 이루고있으며 민족음악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한 원칙으로 되고있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민족음악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명철한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예술창조사업에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민족음악의 전면적개화기를 열어놓으시였다. 오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유산의 하나인 민족음악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계신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철령아래 사과바다》와 같이 민족의 향취가 진한 음악에 대한 애착의 감정은 류다르다. 얼마전에 《바다 만풍가》가 창작되였을 때에도 그러했지만 이번에 《철령아래 사과바다》가 또다시 울려나오자 우리 인민들은 강성국가의 새 민요, 우리의 노래가 제일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하고있다.

민족음악은 어느 나라에나 있어도 우리 나라에서처럼 그 진정한 가치가 전체 인민의 열렬한 공감을 받고 나라의 음악예술발전을 떠밀어주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는 현실은 찾아보기 힘들다.

노래 《철령아래 사과바다》가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는 참으로 크다.

우선 내용과 형식, 창작과 창조의 모든 면에서 오늘날 우리 당이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는 정책적요구들을 구절마다에 속속들이 반영하였다는데 가장 큰 성과가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들, 문학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적이며 민족적인 정서로 당정책관철에 이바지하는 음악이 어떤것인가를 이 노래를 통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현시기 사람들을 강성국가건설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가장 힘있는 원동력은 **김정일**애국주의이다. 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김정일**애국주의의 깊은 의미를 가슴벅차게 느끼고있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불타는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더우기 이 노래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로 하여금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말로써가 아니라 훌륭한 명작의 실체로써 체득할수 있게 하여주었으며 젊은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민족음악창작의 귀중한 교본을 마련해주었다.

노래 《철령아래 사과바다》의 창작창조성원들은 당정책관철로 들끓는 현실에 들어가 인민대중의 목소리를 예술작품에 담을 때 시대가 바라고 인민이 요구하는 훌륭한 명작들을 능히 창작할수 있다는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에게 열정을 안겨주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불러일으키는 참다운 음악은 당정책의 정당성을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오늘의 시대현실을 뜨겁게 체험한 예술가의 심장속에서만 나올수 있다. 타고난 음악적천성으로는 예술의 세계를 노래하지만 식을줄 모르는 혁명열과 민족의 넋으로 고동치는 심장으로는 위대한 시대의 정신과 시대의 정서를 격조높이 구가한다. 하기에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노래 《철령아래 사과바다》를 흠잡을데 없는 대걸작으로 높이 평가하고있으며 당정책옹위가요를 훌륭히 창조형상한 창작가, 예술인들을 긍지높이 자랑하고있는것이다.

이 노래를 부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눈앞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산과수농장을 찾으시였던 그날이 선히 떠오른다.

지난날 땅이 질어 진고산, 바람세차 풍고산으로 불리우면서 사람 못살 고장으로 소문이 났던 고산땅이 로동당시대에 와서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그 이름이 빛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한평생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을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된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던 어버이장군님,

고산과수농장이야말로 새 세기의 면모에 맞는 창조물이라고 하시면서 온 나라에 타번지는 거세찬 대고조의 불길속에서 최근년간 평양시의 원흥지구와 북청군을 비롯한 나라의 대규모과일생산기지들이 자기의 면모를 일신하였다고, 이 눈부신 전변은 머지않아 펼쳐질 강성국가의 휘황찬란한 래일을 확고히 예고해준다고 하시던 어버이장군님의 그날의 말씀의 깊은 뜻이 노래의 구절들에 어려와 인민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있다.

어찌 그뿐이랴.

올해 전승절을 며칠 앞둔 지난 7월 어느날 고산과수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눈뿌리 아득한 고산과수농장의 전경을 부감하시면서 얼마나 보기 좋소, 철령아래에 사회주의선경, 인민의 리상향이 활짝 꽃펴나고있소, 아마 시인들이 이곳에 서면 시상이 절로 떠오를것이라고 하시면서 끝간데없이 펼쳐진 과수의 바다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인민의 행복을 제일로 여기시며 인민의 기쁨에서 혁명하는 보람을 찾으시는 절세의 위인들을 모신 내 조국이 제일이라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우리 인민은 온 넋으로 절감하고있다.

선군은 절경을 펼치고 그 아름다움이 시대의 명작을 낳는 내 나라, 내 조국!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랑하는 나의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철령아래 사과바다》와 같은 번영의 노래들이 더 많이, 더 아름답게 울려퍼지게 하기 위하여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따라 선군의 길을 끝까지 가고갈것이다.

우 정 혁

사회주의청춘과원에 건설의 번영기를 펼쳐가는 승리자의 자랑 넘친다

고산과수농장능력확장공사에 떨쳐나선 618건설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또 하나의 선경, 인민의 리상향 펼쳐놓으리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있는 고산과수농장능력확장공사장에 대비약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최상의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한 618건설돌격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능력확장공사를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해주신 날자에 무조건 완공할 열의밑에 총결사전을 벌려나가고있다.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8 000여m의 도로구간에 대한 흔석다짐공사와 수십동의 살림집, 공공건물건설 및 보수, 1만 8 000여㎡의 과일보관고부지정리 등의 작업과제들이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사업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견인불발의 의지와 대담한 공격정신으로 힘있게 밀고나가 혁명과 건설에서 대변혁, 대비약을 이룩해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궐기모임을 마치고 전투장으로 달려나가는 현장지휘부와 각 도려단 일군들, 돌격대원들의 심장은 세차게 높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농장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표준농장으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과수농장으로 전변시키자!

어느 단위에서나 이런 불같은 결의를 다지는 웨침이 터져나왔다.

결코 쉽게 점령할 목표가 아니였다. 지금까지 수행한 공사량에 비해볼 때 로력, 설비, 자재 등이 더 많이 요구되였다. 하지만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조건을 탓하지 않았다.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연길폭탄정신으로 뚫고나가자는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각오였다.

전투시작부터 온 공사장이 애국충정의 불도가니로 부글부글 끓었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부터가 승리자의 자신심과 배짱을 가지고 분발해나섰다. 이들은 단계별 전투목표를 정확히 세운데 기초하여 모든 단위들에서 공사실적을 높이기 위한 사전준비를 빈틈없이 해나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투장들을 하나씩 타고앉아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집중적인 사상공세를 더욱 강도높이 벌려나갔다.

돌격대원들은 인민의 리상향,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전변될 고산땅의 휘황한 래일을 눈앞에 그려보며 긴장한 전투의 순간순간을 이어나갔다.

과일보관고의 부지정리가 한창이던 지난 어느날 황해남도려단의 작업구간에서는 암반층을 극복하기 위한 전투가 치렬하게 벌어졌다. 풍화작용을 많이 받아 발파효률이 낮은 암반인것만큼 발파구멍의 수를 훨씬 늘이는데 따라 전투의 승패가 좌우되였다. 그런데 려단의 실정에서는 2대의 착암기밖에 리용할수 없었다.

뜻밖의 정황앞에서 모두가 어쩔줄을 모르고있던 그때였다. 누군가가 함마를 쥐고 전투장에 뛰여들었다. 어렵고 힘든 모퉁이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군하던 려단일군이였다. 그의 뒤를 청년돌격대원들이 너도나도 따라나섰다. 야무진 착암기소리, 정대를 힘차게 때리는 함마질소리가 공사장의 여기저기서 울려퍼졌다. 억수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도 이곳 돌격대원들은 정대와 함마를 가지고 하루에 700~800개정도의 발파구멍을 뚫어 려단앞에 맡겨진 부지정리과제를 성과적으로 해제꼈다. 이들에게 뒤질세라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가며 굴뚫기속도를 높여나간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평안남도와 황해북도려단의 돌격대원들도 계획된 전투과제를 제기일에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천지개벽된 사회주의청춘과원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려가는 돌격대원들의 이런 장한 모습을 어찌 과일보관고부지정리전투장에서만 볼수 있으랴.

평양시려단 대동강구역대대에서 3배나 높아진 콩크리트지지대생산을 위해 종전보다 2배이상의 깬돌과 모래채취목표를 세웠을 때였다. 대대일군들이 골재채취장에 가보니 그곳에는 장마비로 무섭게 불어난 강물이 허리를 치고있었다. 이 사실을 안 돌격대원들이 대대지휘부로 달려왔다.

《우리의 전진속도가 떠지면 그만큼 완공의 날이 멀어질게 아닙니까. 어서 돌격구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웨치는 돌격대원들의 얼굴마다에는 결사의 각오와 의지가 비꼈다.

드디여 전투가 시작되였다. 2~3명씩 조를 뭇고 하루종일 사품치는 강물속에 들어가 필요한 규격의 자갈과 모래를 채취한다는것은 간단치 않았다. 하루일을 끝낸 저녁이면 너무도 힘들고 지쳐 걸음을 제대로 옮기지 못하는 돌격대원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필요한 규격의 자갈과 모래를 채취하기 위해 한밤을 지새우며 자전거바퀴로 원통식선별기를 제작해나간 돌격대원들이였다. 이들이 골재채취를 위해 바쳐온 헌신의 낮과 밤이 있어 량강도광업련합기업소련대에서는 지난 시기보다 3배로 높아진 콩크리트지지대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사회주의청춘과원에 하루빨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려는 돌격대원들의 신념과 의지에는 이렇듯 단 한치의 드팀도 없었다.

이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지니고 평양시려단 강동군대대의 일군들은 맡겨진 50여t의 환강생산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제꼈다. 수리개들의 용맹을 떨치며 전력공업성려단의 돌격대원들은 여러 생산단위들에서 요구되는 전력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였다. 쇠그물울타리공장의 생산자들은 원료의 국산화비중을 높일수 있는 방도를 찾아쥐고 기대마다 만가동의 동음을 계속 높이 울려나갔다.

그뿐이 아니다.

함경북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당이 준 과업을 집행하기 전에는 물러설 자리가 없다는 배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1 000여m의 도로구간에 대한 2 000여㎥의 흙쌓기와 흔석다짐을 나흘동안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철령아래에 또 하나의 사회주의선경, 인민의 리상향을 펼쳐놓기 위한 총공격전이 벌어지고있는 고산땅의 하루하루는 이렇게 흐르고있다.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애국의 열정을 부강조국건설에 아낌없이 바쳐가는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고산과수농장의 면모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부닥치는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갈수 있으며 추호의 동요도 없이 당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습니다.》

황해남도려단이 콩크리트지지대세우기를 남먼저 끝내고 돌격대적으로 앞선 단위가 되였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조건을 탓하기 전에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가지고 창조적사색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전투과제를 손색없이 수행하는것은 려단일군들의 사업기풍에서 본받을만 한것이다.

콩크리트지지대운반에서 혁신을 일으킨 사실을 놓고보자.

일군들은 콩크리트지지대세우기를 조직하면서 운반문제를 놓고 토의를 거듭하였다. 수송거리가 20여리나 되여 운반에 많은 시간이 들기때문이였다. 일정계획대로 내밀자면 필요한 량의 콩크리트지지대를 모두 현장에 운반해놓은 조건에서 작업을 시작해야 가능하였다. 그런데 며칠동안 운반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면 그만큼 콩크리트지지대세우기작업이 처질수 있었다.

방도는 무엇인가. 이때 려단정치부장이 콩크리트지지대운반은 대대들에 있는 자동차들로 집중수송하고 세우기는 대대별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내밀면 얼마든지 돌파구를 열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려단참모부에서는 즉시 모든 대대의 자동차가동정형을 따져보고 수리정비를 실속있게 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그리고 집중수송편대를 무어 려단일군들에게 분담하였으며 운전사들호상간 사회주의경쟁도 조직하였다.

우승의 돌파구를 연 창조적인 일본새

◎ 황해남도려단 일군들의 사업에서 ◎

드디여 콩크리트지지대집중수송과 세우기전투가 동시에 시작되였다. 해주시대대의 자동차가 앞장에 서고 다른 대대의 자동차들이 그뒤를 따랐다. 신원군대대의 한 운전사가 콩크리트지지대를 한대도 파손없이 수송해야 운반효률을 높일수 있다면서 톱밥을 준비해가지고 전투에 참가하자 모두가 그의 모범을 따랐다. 결과 몇명의 운전사들만 가지고 필요한 량의 콩크리트지지대운반을 해제끼면서 세우기도 일정계획대로 내밀수 있게 되였다.

작업방법을 따져가며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기 위한 문제를 중시하고 혁신적으로 실천해나간것도 긍정할만 하다.

어느날 려단일군이 신원군대대의 전투장에 나갔을 때였다.

대대는 려단적으로 콩크리트지지대세우기실적이 제일 높았다. 실적이 높은만큼 질도 따라서고있었다. 비결은 구뎅이파는 기계를 리용한데 있었다. 려단일군은 기계의 가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과정에 그 우월성을 확신하게 되였다. 우선 작업속도가 높았다. 돌격대원 한명이 삽으로 하루에 5개의 구뎅이를 팠다면 이 기계로는 두사람이 50여개를 팔수 있었다. 다음으로 품을 적게 들이면서 콩크리트지지대세우기를 질적으로 할수 있었다. 1m깊이의 구뎅이를 삽으로 파면 직경이 콩크리트지지대보다 훨씬 커졌다. 이런 구뎅이에 콩크리트지지대를 세우자면 공간이 많아 줄을 맞추면서 흙을 묻고 다져야 하므로 적지 않은 품이 들었다. 그러나 이 기계를 리용하면 콩크리트지지대와 같은 직경으로 구뎅이를 팔수 있다. 그러니 측량을 하면서 콩크리트지지대를 세울 자리만 정해놓으면 수백수천대를 세우면서도 묻는데는 품을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 질을 보장할수 있었다.

일군들은 즉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고 모든 대대들에서 구뎅이파는기계를 여러대씩 만들어 리용하도록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하였다. 결과 려단적으로 그 기계가 수십대로 늘어났다. 이렇게 려단일군들은 창조적사색과 실천으로 돌파구를 열어 콩크리트지지대세우기에서 앞선 단위로 되게 하였던것이다. 우승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수리개의 용맹 떨치며

전력공업성려단에서

전력공업성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수리개의 용맹떨치며 전력보장을 위한 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고있다. 특히 이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전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감으로써 도중손실을 줄이면서 쇠그물울타리공장과 여러 생산단위들에 전기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진군을 다그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려단일군들은 현장지휘부와의 적극적인 련계밑에 고산과수농장을 철령아래 과일향기, 과일파도가 물결치는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킬 결사의 각오를 안고 전력보장을 위한 공사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이들은 계획된 전투과제를 와닥닥 끝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하고 공사대상에 맞게 분담을 바로하였다. 또한 집체적토의밑에 공사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설비와 자재보장사업을 적극 따라세울 대책들도 세워나갔다. 그리고 수천리길을 오가며 련관단위들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수십종에 수백점의 설비들과 자재를 자체의 힘으로 마련하였다.

현장지휘부일군들도 나라의 귀중한 전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방도들을 찾고 요구되는 설비를 보장해주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공사에 진입한 려단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전투시작부터 드센 돌격전을 벌려나갔다. 려단정치일군들은 현장에서 모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하겠다는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도록 사상사업을 립체적으로, 공세적으로 벌려나갔다.

려단참모장 엄영길동무를 비롯한 참모부일군들은 설비가공과 조립, 송전선늘이기 등 모든 작업공정들을 하나씩 담당하고 기술적지도를 짜고들면서 공사를 일정계획대로 내밀었다.

함경남도송배전부대대에서 설비가공과 조립을 힘있게 다그쳤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제힘을 믿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설비가공을 앞세우면서 부족되는 자재를 자체로 해결하여 성과를 높여나갔다. 그리고 800여대의 콩크리트전주를 수백리 떨어진 건설현장에 운반하기 위한 수송전투를 벌려 단 며칠동안에 끝냈다.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황해남도송배전부대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전주세우기와 송전선늘이기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김종렬동무를 비롯한 대대일군들은 공사현장에서 돌격대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전주세우기를 짧은 기간에 끝낼수 있는 혁신적인 방도들을 찾았다. 그리고 공사속도를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임으로써 한 주일이상 걸린다던 많은 량의 전주세우기를 3일동안에 끝낼수 있게 하였다. 또한 작업조직을 짜고들어 송전선늘이기도 앞당겨 결속하도록 하였다.

중요설비조립을 맡은 강원도송배전부대대에서도 맡겨진 전투과제를 제 기일에 끝냈다. 대대일군들은 해당 부문과의 련계밑에 필요한 설비와 부속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갔다. 돌격대원들은 높이 세운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면서 힘찬 전투를 벌려 설비조립을 20일동안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놓은 려단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며 다음단계의 공사과제도 빠른 기간에 결속하기 위해 힘찬 돌격전을 벌려나가고있다.

철령이 지켜본다, 최대속도로 질풍같이

비약의 거세찬 밑불로

남포시려단앞에 과일보관고부지정리과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작업량과 작업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본 려단정치부장 전영복동무는 현장정치사업의 모든 내용을 **김정일**애국주의교양에로 지향되게 할것을 결심하였다. 그리고 대대별사회주의경쟁과 기동예술선동대활동, 방송차선전, 취주악공연, 노래축하모임을 조직해도 철저히 돌격대원들의 애국적열의를 총폭발시키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하였다.

돌격대원들속에서 발현되는 자그마한 애국적소행도 속보판에 게재하고 그들을 위한 축하모임도 조직하여 모두가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의 피를 끓이게 하였다. 결과 맡겨진 부지정리전투과제를 짧은 기간에 끝낼수 있었다.

일군들은 도로포장에 필요한 깬돌생산전투가 시작되였을 때에도 돌격대원들이 불타는 충정을 안고 맡겨진 작업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이끌어나갔다.

콩크리트지지대운반과 세우기때에는 앞장에서 이신작칙하며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갔고 건축물공사장에서는 남먼저 첫삽을 뜨면서 돌격대원들을 위훈에로 불러일으키군 하였다.

돌격대원들의 심금을 울리는 이런 현장정치사업은 곧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는 거센 밑불로 되여 려단이 언제나 우승단위로서의 영예를 떨칠수 있게 하였다.

나흘동안에 끝낸 로반공사

함경북도려단의 일군들은 로반공사를 앞두고 그 수행방도를 륜전기재들을 집중적으로 리용하여 운반효률을 높이는데서 찾았다.

모든 대대들에서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놓고 륜전기재들의 머무름시간을 훨씬 줄일수 있게 작업조직을 빈틈없이 해나갔다. 또한 수리기지를 꾸려놓고 예비부속품들도 충분하게 마련하여 륜전기재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였다.

드디여 전투가 시작되자 일군들은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면서 돌격대원들의 앙양된 열의가 높은 실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전투조직과 지휘를 더욱 빈틈없이 해나갔다. 또한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면서 돌격대원들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돌격대원들도 고산과수농장능력확장공사를 하루빨리 완공할 드높은 결의를 안고 승벽내기로 일손을 다그쳐나갔다. 대대별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가운데 려단의 작업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갔다. 결과 려단에서는 다른 전투과제들을 지장없이 내밀면서도 많은 량의 흙과 흔석을 짧은 기간에 운반하여 맡겨진 로반공사를 나흘동안에 해제끼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생산능력을 2배이상으로

—100여일동안에 고산과수농장에 칠 쇠그물울타리생산을 결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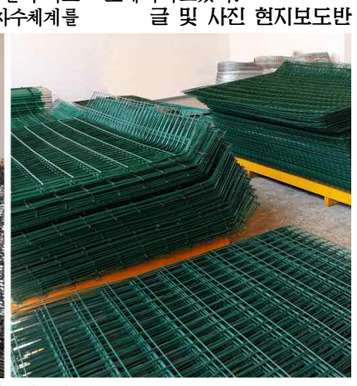
쇠그물울타리공장 일군들과 생산자들이 이런 높은 목표를 세우고 완강한 돌격전을 벌려나가고있다.

공장에서는 설비들의 리용률과 가동률을 최대로 높여 생산능력을 2배이상 늘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그 과정에 용접기의 작업능력을 1. 2배로 높이였으며 여러 설비들을 보충 및 개조하였다. 생산자들은 현장에 이동수리기지를 꾸려놓고 예비부속품도 충분히 확보해놓았다. 또한 자검자수체계를 철저히 세워 설비들에 만부하를 걸어 높이 세운 일별, 월별전투목표를 넘쳐 수행하였다.

생산성과가 높아지는데 맞게 공장에서는 현장지휘부와의 련계밑에 자재보장을 앞세우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내밀었다. 그리하여 쇠그물울타리생산을 시작하여 첫 한달동안에 10여km를 생산하였다.

지금 일군들과 생산자들은 계획된 100여km의 쇠그물울타리생산을 제 기일까지 무조건 끝낼 승리의 신심드높이 날에날마다 새로운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쇠그물울타리공장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동포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2일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 벨지끄 체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강석주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9일과 10일 벨지끄를 방문하였다.

체류기간 강석주동지는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 유럽의회 사회당그루빠 대외관계담당 부위원장, 유럽사회당 대외관계담당 부총서기 등 유럽의회와 유럽동맹의 관계인사들을 각각 만나 담화를 하였다.

담화들에서는 우리 나라와 유럽동맹사이의 관계발전문제를 비롯한 호상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교환이 진행되였다.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

14일 10시부터 모란봉체육단에서 경공업성체육단과 모란봉체육단사이의 쏘프트볼 1급 도전경기가 진행된다.

【조선중앙통신】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도착

황남식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2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김용대를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12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로씨야련방평의회 1부의장일행 귀국

알렉싼드르 또르신 로씨야련방평의회 1부의장과 일행이 12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 알렉싼드르 찌모닌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영국기업가대표단 귀국

예브게니 레베제브를 단장으로 하는 영국기업가대표단이 12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제14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이 진행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제14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이 진행된다.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전에서는 세계 40여개 나라와 국제기구에서 출품한 100여편의 영화들이 상영된다.

장편예술영화와 기록 및 단편영화경쟁, 최근 국제적인 영화축전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영화들에 대한 특별상영, 각이한 종류의 영화에 대한 통보상영, 여러 나라들사이의 합작, 기술협조를 위한 영화교류회가 진행되게 된다.

또한 조선영화시사회도 있게 된다.

축전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에서 참다운 예술을 창조하고 향유하려는 세계 진보적영화인들, 인민들사이의 친선과 단결,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헌신과 사랑으로 이어진 18년

얼마전 평강군 정산리에서 사는 박호복동무는 군사복무중 부상당한 자기를 18년동안 극진히 위해준 한 교육자에 대한 이야기를 본사편집국으로 전하여왔다.

주인공은 **평강군 전중고급중학교 교원 리영애동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참된 인간이 지닌 감정과 지향은 아름다운것이다.》

18년전 제대군인처녀 박호복동무는 조용히 고향집으로 돌아왔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건만 중학교시절의 음악교원이였던 리영애동무가 문득 그의 집으로 들어섰다.

중학교시절 밤을 새워가며 손풍금연주법과 성악기교를 배워주었고 초소로 떠날 때에는 군사복무를 잘하라고 당부하던 잊을수 없는 선생님이였다. 그런데 제자가 부상당한 몸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남먼저 귀한 약재와 몸보신에 좋은 영양식료품을 마련해가지고 읍에서 80리나 떨어진 집에까지 찾아온것이 아닌가.

《조국보위초소에서 당한 부상은 결코 불명예스러운것일수 없어. 되려 그 반대이지.》

나약해지는 마음을 흔들어 바로잡아주며 억세게 버티여주는 옛 선생님을 박호복동무는 눈물을 머금은채 바라보기만 하였다.

그때로부터 리영애동무는 한해도 번지지 않고 박호복동무의 생일은 물론 명절날, 기념일이면 80리 먼길을 달려 그를 찾아와 락심과 주저를 모르고 생활하도록 고무해주었다. 때로는 남편인 김세열동무와 함께 호복이가 산골마을에서 적적하겠다고 하며 자기 집으로 데려다 몸보신에 좋은 영양음식들을 정성다해 만들어주기도 하고 생활필수품도 마련해주었다. 평양의 중앙병원에서 불편없이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것을 갖추어준적은 또 몇번인지 모른다.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진행할 때마다 학생들을 데리고 집에까지 찾아와 노래도 불러주고 재미나는 이야기도 들려주는 선생님을 보며 박호복동무는 언제나 병사시절처럼 락관에 넘쳐 살도록 깨우치는 스승의 당부를 가슴깊이 새기군 하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부터 오늘까지 18년동안 몸을 상한 제자를 위해 날과 달을 뜨거운 사랑과 헌신으로 이어온 리영애동무이다.

오늘도 그가 바라는것이 있다면 박호복동무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바라시는대로 군사복무시절처럼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도록 하는 그것뿐이다.

본사기자

덕천시 평화동 72인민반 장춘옥동무의 가정

바치고싶은 마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끝없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어머니당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여러해전 덕천시의 자그마한 탄광마을에 경사가 났다. 평범한 탄부의 아들이 평양의 이름난 수재양성기지에 입학했던것이다. 그날 덕천시 평화동 72인민반 장춘옥동무와 세대주 류영철동무는 온밤 잠을 이룰수 없었다.

다음날 류영철동무는 날이 채 밝기 전에 막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때 그들부부는 다 알수 없었다. 보답에 앞서 받아안는 사랑과 행복에는 정녕 끝이 없다는것을.

그후 아들 충일이가 금성학원을 졸업하고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했을 때 장춘옥동무는 아들을 불러앉히고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탄부였다. 그리고 이 엄마도 평범한 로동자이구. 그러나 나라에서는 널 이렇게 주체교육의 최고전당으로 불러주었다. 너에게는 비록 아버지가 없지만 그보다 더 크고 따뜻한 품이 있다는걸 명심하고 공부를 잘하거라.》

장춘옥동무가 아들에게 한 말은 곧 자기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했다. 그때부터 그는 딴 사람이 된듯싶었다. 탄광일로 바쁜 속에서도 장춘옥동무는 짬짬이 집터발자리에 집짐승우리를 짓고 집짐승들을 기르기 시작하였다.

딸 옥영이가 평양에 가있는 오빠의 몫까지 한다면서 어머니의 일손을 도와나섰다.

그러던 어느해 겨울 장춘옥동무는 어버이장군님께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였다는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북방의 차디찬 눈보라속에 서계시는 어버이장군님의 영상을 눈물속에 우러르며 그는 자기가 할바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그는 가정에서 마련한 수많은 지원물자를 안고 희천발전소건설장으로 향했다. 그렇게 시작된 보답의 길은 끝없이 이어졌다.

장춘옥동무는 희천발전소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를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전투장뿐아니라 초소의 군인들을 위한 원군길에도 헌신의 자욱을 새겨갔다. 그 나날 그는 꿈에도 소원하던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였고 어버이장군님의 은정어린 감사를 받아안게 되였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도 참가하였다. 옥영이도 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에 앞장섬으로써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에 소년단대표로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였다.

평범한 탄부가정에 돌려준 당의 크나큰 은정을 심장에 안고 오늘도 그는 보답의 한길을 끊임없이 이어가고있다.

본사기자 리남호

전망성있는 창작가, 예술인재육성에 더욱 큰 힘을!

개성이 뚜렷한 배우후비들로 준비해간다

평양연극영화대학 배우학부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문학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후비육성사업을 전망적으로 잘해나가야 합니다.》

평양연극영화대학 배우학부의 교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학부장 박영민, 부학부장 한성복동무들은 매 강좌별로 개성이 뚜렷한 배우후비들을 키워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후비육성사업을 보다 힘있게 내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강좌장 우영진동무를 비롯한 배우강좌의 교원들은 5대혁명연극공연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정하여주신 형상기준을 철저히 보장하며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시대성을 반영한 현실주제의 연극들을 창조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심장에 새기고 학생들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강좌에서는 학생들이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를 비롯하여 여러 혁명연극들을 록화물로 보면서 연구분석한데 기초하여 연기형상수준을 높이기 위해 애써 노력하도록 하고있다.

강좌에서는 과외시간에 가상적인 정황에서의 즉흥연기발표회를 자주 조직함으로써 학생들의 착상력을 높여주고 창조적인 연기, 개성적인 연기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로 자라나도록 하고있다. 화술에 대한 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된바람도 불고있다. 매 학생들의 현재수준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부족점들을 고치도록하기 위한 실기지도안을 완성하는데 많은 품을 들이고있으며 모든 학생들이 각이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언어생활습관과 여러가지 심리변화에 따르는 소리높이, 속도, 어조 등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기량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강좌의 교원들은 영화에 대한 교육을 영화종류와 형태별로 다양하게 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학생들에게 서정적인 영화와 고전극적인 영화, 활극영화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류형의 영화에 대한 교육을 잘할수 있게 교육내용을 혁신하기 위한 사업, 학생들의 학습열의를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 영화와 관련한 다매체편집물들을 많이 제작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큰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평가하신 우리 나라 영화들에 대한 다매체편집물, 여러가지 류형의 영화에 대한 다매체편집물들이 이미 제작되였으며 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역을 맡겨주어도 능숙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하는데서 좋은 길동무가 될 다매체편집물들이 계속 제작되고있다.

강좌장 고철웅동무를 비롯한 화술기초강좌의 교원들도 전문부 학생들의 화술형상지도에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화술기초강좌의 교원들은 매 학생들이 같은 정황속에서도 자기의 개성이 살아나게 화술형상을 하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학생들로 하여금 발견과 탐구, 사색이 깃든 새로운 형상안을 자체로 구상해보게 하고있다.

특히 교원들은 학생들이 우리 인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명시랑송과 소설랑독을 통하여 각이한 정황과 심리에 따르는 화술형상의 묘리를 터득하도록 하고있으며 영화에서 잘된 역형상들을 분석해보면서 여러가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언어생활습관도 깊이 파악하게 하고있다.

강좌장 리영희동무를 비롯한 음악률동강좌의 교원들은 실지 생활에서와 같이 자연스러운 연기를 할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이 육체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이곳 교원들은 실기훈련을 많이 하는데 중점을 두고 학생들이 활극영화의 난도높은 동작들을 능숙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유연성훈련, 힘키우기훈련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걷기자세, 달리기자세, 조약자세, 제자리에 서있는 자세 등에 대한 정확한 표상을 가지도록 다매체편집물을 통한 교육도 진행하고있다.

교원들은 률동훈련에 대한 풍부한 자료들이 들어있는 다매체편집물을 더 많이 제작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내밀고있다.

본사기자 백성근

리론과 실천을 적극 배합하여

평양미술대학 산업미술학부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업미술도안은 새롭고 특색있는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멋진 산업미술도안들을 창작하기 위한 사업과 산업미술도안창작가후비들을 훌륭히 키우기 위한 사업에서 평양미술대학 산업미술학부의 교원들이 성과를 올리고있다. 특히 교원, 학생들이 중요한 산업미술도안창작과정을 통하여 풍부한 경험을 쌓고있는것이 주목된다.

최근시기 교원들은 산업미술도안창작과 후비육성에서 무엇을 중시하였는가?

해박한 지식습득이다. 학부장 리병국동무는 모든 교원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보아주신 각종 산업미술도안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아주시고 지도해주신 산업미술도안들을 직관화하여 교수사업에 리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중앙산업미술지도국의 해당 일군들과의 련계밑에 모든 교원들이 세계적인 산업미술발전추세자료들을 수집하여 교수에 리용함으로써 그것이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주기 위한 지식습득의 한 단계로 되게 하였다.

교정에서의 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시키는것과 함께 교원들이 잘하고있는것이 또 한가지 있다.

학생들이 현실에 나가 부단한 소묘와 현지습작을 통하여 앞으로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자료축적을 하고 여러가지 산업미술도안창작과정을 통하여 풍부한 경험을 쌓게 하고있는것이다.

상업미술강좌장 김춘성동무는 자기자신이 우수한 산업미술도안들을 많이 창작하면서도 그 경험과 묘리를 가르쳐주어 보다 더 특색있는 도안을 창작하도록 학생들의 착상력과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방직의상미술강좌 교원 김옥경동무도 각종 산업미술도안을 창작하자면 그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부터 습득하여야 한다는 관점에 서서 학생들의 착상력을 계발시키기 위한데 모를 박고있다. 직업복장도안을 창작하기에 앞서 그 직업에 대한 특성을 먼저 료해하게 한것이 큰 은을 냈다. 사무원복장, 기술봉사원복장, 체육인복장도안창작에서 편리성과 실용성을 담보하자면 어떤 점에 주의를 돌릴것인가, 어떤 색을 조화시켜야 민족적이면서도 현대적미감에 맞겠는가 등 많은 물음을 제기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과정에 학생들의 창작능력은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중앙동물원개건보수공사장에도 학생들과 함께 자주 나가 동물들의 활동상특성을 관찰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겠는가 등 많은 물음을 제기하고 학생들끼리 론쟁도 활발히 벌리도록 하였다.

결국 학생들은 우수한 산업미술도안에 대한 분석과 교원의 강의를 통해, 현지에서의 습작과 중요한 산업미술도안의 창작과정을 통해 앞으로의 도안창작에서 큰 밑천으로 될 풍부한 지식을 자기의것으로 만들고있다.

그에 토대하여 산업미술도안을 창작하는 사업에서도 놀라운 전진이 이룩되였다.

이 학부의 경험은 리론과 실기를 배합하여 도안창작의 밑천을 든든히 마련해주기 위한 교원들의 의식적인 노력이 후비육성사업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있다.

조향미

선발과 교육을 방법론있게

평성고등예술전문학교 민족기악강좌에서

천성적인 소질과 재능을 가진 전망성있는 대상들을 어떻게 선발하며 그들을 훌륭한 창작가, 예술인후비로 어떻게 키워내겠는가?

평성고등예술전문학교 민족기악강좌의 교원들에게는 그에 대답을 주는 경험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예술부문 교육은 특수교육인것만큼 예술에 대한 천성적인 소질과 재능을 가진 전망성있는 대상들을 선발하여 창작가, 예술인후비로 잘 키워야 합니다.》

강좌장 박영웅동무를 비롯한 민족기악강좌의 교원들은 후비선발에서부터 기준을 명백히 세웠다. 일반적인 후비선발기준을 세운 다음에도 매 민족악기의 특성에 맞게 연주법을 쉽게 터득하여 능란하게 활용할수 있는 재능의 싹이 있는가 등도 충분히 료해하여 선발을 신중하게 하는데 많은 품을 들이였다.

선발도 중요하지만 예술교육도 천편일률식으로 하여서는 안된다는것이 이곳 교원들의 견해이다.

김경란교원은 무대우에서 소해금연주동작이 부드럽지 못한 한 학생을 위해 무용교원과의 련계밑에 무용련습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였다.

결과 그 학생은 전국적인 학생소년들의 예술경연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였으며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에 입학할수 있었다.

정은심교원은 가야금연주교육에서 왼손의 주법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소리색갈이 달라지고 그것이 청중에게 전달되는 감흥도 달라진다는것을 포착한데 기초하여 전반적인 소리색갈을 아름답게 내도록 하는데 주의를 돌렸다.

박영순교원도 양금연주교육에서 학생들이 수업진도에 따르는 교측본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하는데 주의를 돌렸다. 특이하게 발전속도가 빠른 학생들에게는 자기 학년의 련습곡을 뛰여넘어 보다 수준이 높은 련습곡들을 연주해보게 하였다. 결과 학생들의 열의는 더욱 높아졌고 연주수준도 높아질수 있었다.

선발부터 신중하게 하고 일단 선발된 학생들에 대한 예술교육에서도 지난 시기의것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매 학생의 수준과 능력에 맞는 참신한 교육방법을 적용한 학교의 경험은 본받을만 한것이다.

본사기자

바다면 산촌에 펼친 양어작전

량강도광업련합기업소에서

최근 량강도광업련합기업소 광산들과 지질탐사대들에서 양어장을 훌륭히 꾸려놓고 물고기를 대대적으로 기르고있는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온갖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양어를 발전시킴으로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고기떼가 욱실거리게 하여야 합니다.》

해발고가 높고 기온이 낮은 량강도에서 양어를 한다는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도광업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물고기떼가 욱실거리게 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양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에서는 오일광산을 본보기로 내세우고 경험을 다른 광산들과 지질탐사대들에 일반화하기로 하였다.

오일광산 일군들은 영광청년양어장을 참관한데 이어 양어기술을 배우고 메기를 기르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춘 다음 7000여마리의 메기종자를 확보하였다.

생산성이 높은 메기를 대대적으로 기를 계획밑에 광산에서는 1000여㎥의 토량처리와 400여㎥의 콩크리트치기작업을 다그쳐 양어장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질적으로 완공하였다. 지금 광산에서는 메기기르기를 보다 과학화, 집약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를 찾는것과 함께 싸그쟁이, 물벼룩류와 같은 동물성먹이와 배합먹이보장에 힘을 넣고있다.

운흥광산에서도 양어장을 꾸려놓고 메기기르기를 대대적으로 하고있다.

운흥제련소에서는 수백㎥의 양어장을 만들고 지대적특성에 맞게 찬물속에서 잘 자라는 여러가지 물고기를 넣어 양어를 활성화하고있다.

갑산광산과 운흥지질탐사대에 건설된 양어장전망도 좋다.

련합기업소의 신장후방물자생산사업소에서는 메기를 양어장에서 기르다가 날씨가 점차 차지면 큰단백풀실내재배장에 옮겨 적합한 물온도를 보장하며 키우고있다.

백두산기슭에서 여러가지 물고기를 길러 그 덕을 보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는 련합기업소일군들의 사업이 기대된다.

특파기자

울려가라 사랑의 기적소리여

지난 32년간 랑림군 하신원-상신원 통학렬차 무사고로 운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앞날의 조선은 우리 소년단원들의것이며 동무들의 모습에 조국의 래일이 비껴있습니다. 우리 당은 동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만들어 넘겨주려고 합니다.》

붕-

출발을 알리는 통학렬차의 기적소리이다.

두메의 산촌에 울리는 기적소리는 우리의 가슴속에 한없는 격정의 파도를 일으킨다.

수십년전 하늘아래 첫 동네인 랑림군의 신원로동자구에는 10리가량 떨어진 작은 마을이 있었다. 산간벽지의 마을이래야 몇세대 되는 집이 전부였다. 그때 이 작은 마을에서 6명의 어린이들이 하신원까지 10리길을 오고가며 학교에 다니였다.

주체71(1982)년 4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외진 산간마을의 6명 어린이들을 위해 통학렬차를 보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은정깊은 사랑속에 수수천년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뿐이던 산간벽지에 통학렬차의 첫 기적소리가 울려퍼졌다. 그날 외진 산골마을의 주민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고 고마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통학렬차의 기적소리는 두메산골 어린이들의 푸른 희망, 푸른 꿈을 꽃피워주며 기운차게 울려퍼졌다.

주체88(1999)년 9월 랑림군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증기기관차로 통학렬차의 운행을 보장하고있는것을 아시고 사랑의 전기기관차를 보내주시였다.

이렇듯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산간벽지의 왕들을 태운 통학렬차는 지난 기간 11만3153km의 거리를 무사고로 달리였다.

산골에 울려퍼지는 사랑의 기적소리와 더불어 보람찬 학창시절을 마친 산간마을의 많은 학생들이 오늘은 어엿한 나라의 역군으로 자라났다. 그들속에서도 리광, 리희권, 류창철동무를 비롯한 졸업생들은 철도부문에서 일하며 사랑의 통학렬차의 기적소리를 울려가고있다.

산골마을의 아이들을 위해 이렇듯 통학렬차가 달리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후대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감동깊은 화폭이다.

하기에 통학렬차의 기적소리는 오늘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후대사랑의 뜻을 받들어 새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 중대사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는 학생소년들의 끝없는 행복을 전해주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동세웅

거리와 마을을 제힘으로

강령군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은 강성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인민들의 행복의 터전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선입니다.》

강령군에서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살림집건설과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을 꾸리기 위한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고있다.

방대한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군에서는 설계가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건설에 필요한 자재보장을 적극 따라세우도록 하고있다.

군의 책임일군들이 건설현장에 자주 나가 걸린 문제를 풀어주면서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 전투장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살림집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금정협동농장에 아담한 농촌살림집들이 건설되고있다. 현대적인 살림집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낼 결의를 안고 달려온 군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전투를 벌려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읍지구에 건설되는 수백세대의 다층살림집들이 날이 갈수록 키돋움을 하며 솟구치고있다.

자기 고향, 자기 군을 제힘으로 훌륭히 꾸려갈 애국의 한마음안고 떨쳐나선 군농촌건설대, 송배전소와 량정사업소, 자동차사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휘틀조립과 철근가공, 골재수송에 힘을 넣고 기술규정과 공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날마다 건설속도를 높이고있다. 또한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군도서관, 야외경기장, 로라스케트장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자재보장을 맡은 일군들이 건재보장이자 건설의 속도라는것을 자각하고 발이 닳도록 뛰고있다. 특히 농기계작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기술을 혁신하고 설비들의 능력을 최대로 높여 건설에서 요구되는 철근을 많이 생산하고있다.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건설자들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고있다.

특파기자

크나큰 사랑속에 일떠선 의료봉사기지

황해북도산원에서

우리 당의 은정속에 새로 일떠선 황해북도산원이 개원하여 의료봉사를 시작하였다.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황해북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나날에 사리원시에 현대적인 산원을 건설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였다.

그 크나큰 사랑과 은정속에 일떠선 황해북도산원은 4층으로 된 입원실병동과 3층으로 된 외래병동을 갖춘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이다.

홀의 천정은 언제나 밝은 해빛이 환히 비쳐들게 되여있으며 오른쪽으로는 입원실병동으로, 왼쪽으로는 외래병동으로 올라가게 되여있다.

산원에는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40여종에 100여점의 현대적인 의료설비들과 230여종에 1500여점의 의료기구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져있다.

외래병동 1층에는 산과, 부인과, 유선종양예방과, 녀성건강관리과 등이 있고 2층에는 수술실, 종합실험검사과, 복부초음파실 등이 있으며 3층에는 먼거리의료봉사실이 있다.

먼거리의료봉사실에서는 평양산원의 유능한 의사들과 임의의 시간에 직접 화상협의회를 할수 있으며 수술집도를 위한 구체적인 지도를 받을수 있다. 또한 도안의 시, 군인민병원들과도 련결되여 산모들에 대한 해산방조를 줄수 있게 되여있다.

1만여㎡의 부지면적에 현대적으로 건설된 산원은 푸른 잔디밭과 수종이 좋은 나무들에 둘러싸여있어 그윽한 정서를 안겨주고있다.

산원의 의료일군들은 치료예방사업에 온갖 정성을 다하여 우리 녀성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당의 사랑과 은정을 길이 빛내여갈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김천일

일군의 사회주의수호신념과 후방사업실적

남포항 당위원회 비서 안윤덕동무의 사업에서

후방사업은 당조직의 몫이다. 하다면 당일군들이 후방사업에서 지닌 무거운 책임을 다하기 위한데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은 무엇인가.

군중관문제, 헌신적복무정신문제, 실력문제…

그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 사회주의를 결사수호하려는 신념문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신념이 확고한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 처하고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동요없이 그것을 과감하게 뚫고나가며 맡겨진 혁명임무를 끝까지 수행합니다.》

남포항 당위원회 비서 안윤덕동무가 지난 3년간 후방사업에서 거둔 커다란 성과는 당일군의 사회주의수호신념이자 후방사업실적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파도사나운 방파제우에서

철썩-, 처절썩-

안윤덕동무는 방파제우를 거닐고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바다물에 옷이 젖는것도 느끼지 못하고있었다.

후방사업을 대하는 일부 일군들의 근시안적인 안목때문이였다.

당비서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그가 돌아본 항의 후방토대는 너무도 빈약했다.

볼품없는 단층건물의 버섯재배장, 20여마리의 집짐승들로 현상유지나 하고있는 축사, 자그마한 면적의 남새온실…

종업원들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는것은 꿈도 못 꾸고 이름만 걸어놓은 후방사업실태였다.

이 문제를 놓고 혁신적안을 내놓았을 때 후방부문의 한 일군이 하던 말이 다시금 귀전에 울리였다.

《지난 시기처럼 이제 항이 번창하면 후방사업이 저절로 따라서겠는데 너무 일판을 크게 벌리는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후방사업이 비교적 잘되던 때를 옛말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때는 정말 대외무역이 활발했다는것, 물동들이 항을 채우다싶이 하였다는것, 그에 따라 후방사업도 괜찮았다는것…

주어진 사실들을 놓고볼 때 항에서 후방사업이 추서지 못하는 원인은 일군들의 그릇된 사고관점에 있었다.

그 일군이 회고하는 그때로부터 환경은 많이 달라졌다. 이전 사회주의시장이 무너지고 우리를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책동은 날로 악랄해지고있다. 그전과 달리 누가 주겠다는데도 없고 가져올데도 없다.

그런데도 일군들은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기만 기다리면서 자체의 힘으로 후방토대를 꾸려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있는것이였다.

후과는 컸다.

종업원들속에서 점차 일터에 대한 애착이 식어지고 다른 단위를 넘겨다보는 현상까지 나타나고있었다. 출근률도 이전보다 높지 못하였다.

이대로 나간다면 항의 오늘은 물론 래일의 밝은 전도도 담보할수 없을것이였다.

철썩-, 처절썩-

안윤덕동무는 항을 감싸안고 연 10여리 늘어서있는 방파제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항구를 믿음직하게 지켜서있는 그 방파제가 오직 자기 수령, 자기 당만을 굳게 믿고 그 어떤 시련의 광풍도 꿋꿋이 이겨내며 항과 함께 운명을 같이해온 종업원들의 불굴의 모습으로 안겨왔다.

그는 이런 종업원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후방토대를 튼튼히 다져놓을 때 그들이 사회주의수호전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서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날 파도사나운 방파제우에서 선군시대 당일군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금 깊이 자각한 안윤덕동무는 결심하였다.

(항의 후방사업을 추켜세우기 위한 벅찬 실천투쟁속에서 사회주의수호신념을 검증받으리라!)

돌우에 핀 꽃은 말한다

모든 성공의 비결은 신념의 확고부동성에 있다.

안윤덕동무는 후방사업개선을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굳은 각오를 가지고 밀고나갔다.

4200㎡의 새땅을 찾아내여 남새온실을 번듯하게 일떠세운 과정을 놓고보자.

지금까지 후방일군들은 항에서 남새온실건설을 위한 적합한 부지를 얻어내는것을 불가능한것으로 여기고있었다.

그런데 며칠동안 항을 돌면서 안윤덕동무는 한곳을 정하였다. 이전에 남포제련소의 굴뚝이 있던 자리였다. 백여m의 굴뚝이 무너져 산을 이루었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을 굴뚝산이라고 하고있었다.

그곳에 온실을 건설하자고 할때 일군들은 아연해하였다.

제정신이 있는 소리인가. 집채만 한 콩크리트부재들을 까내고 수만㎥의 버럭을 처리해야겠는데 그 많은 물동을 무슨 수로 나른단말인가. 당비서가 주판에 빠져도 단단히 빠졌다고들 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말도 안윤덕동무의 굳은 신념과 의지를 돌려세울수 없었다. 그는 대중속에 들어가 힘있는 정치사업을 벌리였다. 항장 박준호동무와 부비서 장은석, 김영길동무들을 비롯한 당위원회일군들도 종업원들속에 들어가 후방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켰다.

항이 생겨 일찌기 없던 방대한 온실건설전투가 벌어졌다. 항의 운수수단과 함께 련관단위의 자동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버럭을 실어날랐고 안윤덕동무자신이 앞장에서 함마전과 마대전을 벌리였다.

그야말로 격전이였다. 우리의 제도를 말살하기 위해 날뛰는 적들과의 말없는 대결전이였다.

굳은 콩크리트부재들을 까내기 위해 무려 300회의 발파를 하였다니 그 간고성을 더 말해 무엇하랴.

그 과정에 있었던 하많은 이야기를 어찌 한두마디로 다 전할수 있겠는가.

한번은 필요한 자재가 미처 보장되지 않아 건설이 처지고있었다. 자재보장을 맡은 일군이 주어진 조건을 내대면서 맥을 놓고있었다. 이것을 알게 된 안윤덕동무는 그길로 그 일군을 데리고 시안의 련관단위를 찾아다니며 끝끝내 자재를 해결하여 공사가 일정대로 추진되게 하였다.

그날 심한 자책감에 젖어있는 일군에게 안윤덕동무가 한 말은 무엇이였던가.

《지금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종업원들의 얼굴에 피여나는 웃음꽃을 제일 무서워하오. 우리가 후방토대를 갖추기 위한 사업에서 잠시나마 마력을 내지 못한다면 그 웃음꽃을 피우는 날이 그만큼 늦어진단 말이요!》

그날 일군은 후방사업을 실무적으로만 대하던 자신의 결함을 심각히 뉘우쳤다고 한다.

이것은 안윤덕동무의 사회주의수호신념이 얼마나 투철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이다.

이런 그였기에 그는 남들이 엄두도 못 내던 굴뚝산자리에 끝내 온실을 건설하고야말았다.

일군의 사회주의수호의지는 돌우에 꽃을 피웠던것이다.

안윤덕동무는 후방사업개선을 위한 투쟁에서 해보다가 성공하면 좋고 안되면 할수 없다는 식을 제일 경멸하였다. 우리 당정책은 어느것이나 정당하며 뼈를 깎아서라도 무조건 끝장을 보아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에 선것이다.

당에서 버섯기지를 꾸리라면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였고 양어를 대대적으로 할데 대한 방침이 제시되면 양어장에 물절반, 물고기절반이라고 할 정도의 풍만한 메기풍경을 펼쳐놓았으며 축산에서 비알곡먹이비중을 높이기 위해 천여㎥의 단백풀재배장도 펼쳐놓았다.

바로 후방사업개선을 위한 투쟁과정을 곧 일군의 사회주의수호신념이 발현되는 과정으로 보았기에 그는 후방토대가 령이나 다름없던 항에 기적적인 성과를 안아올수 있었다.

물론 우리는 남포항의 후방사업이 남흥이나 성강과 같은 높은 수준에 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곳에 사회주의수호신념이 그처럼 굳센 안윤덕동무와 같은 일군들이 있기에 래일의 눈부신 성과가 기약되여있다고 본다.

오늘에 와서 우리는 후방사업에서 비약을 일으키며 종업원들의 심장에서 로동당만세의 함성이 울려나오게 하는 단위 당일군들을 다시 보게 된다. 그들은 종업원들의 참된 복무자, 충복인 동시에 사회주의수호신념을 그 누구보다 투철하게 간직하고있는 일군들인것이다.

안윤덕동무의 사업을 놓고 모든 당일군들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나는 과연 후방사업에서 얼마나 실적을 내고있는가. 사회주의수호신념이 과연 얼마나 투철한가.

본사기자 최영길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사이의 대결상태가 하루빨리 해소되고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기를 기대하고있다. 특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당국이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을 철회하고 《5.24조치》의 해제와 금강산관광재개와 같은 실천적인 행동조치들로 북남관계개선의 출로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말로는 그 무슨 《남북관계완화》와 《대화》에 대하여 떠들면서도 실지 행동에 있어서는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며 대결을 고취하는 망동을 계속하고있다. 최근 괴뢰호전광들이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도발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한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현실은 괴뢰집권세력이 아직까지도 동족을 해칠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북남대결정책에 계속 매달리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의 대결정책은 북남관계악화의 근원이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의 채택은 민족적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력사를 펼쳐놓았다. 북과 남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한 대화와 협력과정을 통해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사변적성과들을 련이어 이룩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잃어버린 10년》이니 뭐니 하며 대결정책을 들고나온 극우보수적인 리명박《정권》의 출현으로 북남관계는 파국상태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괴뢰보수패당은 《비핵, 개방, 3 000》이라는 극단적인 대결정책에 《상생, 공영》의 보자기를 씌우면서 그 실현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로골적으로 부정하며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에 무거운 차단봉을 내리고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기승을 부린 리명박역적패당의 망동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마련된 귀중한 성과들이 모조리 짓밟히고 북남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현 남조선당국이 들고나온 《신뢰프로세스》라는것도 본질에 있어서 리명박역도의 반통일적인 《비핵, 개방, 3 000》과 조금도 다를바 없다. 현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인 《신뢰프로세스》는 《신뢰》의 간판밑에 대결책동을 합리화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정치군사적공세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를 그 무슨 《변화》에로 유도하여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불순한 각본이다. 괴뢰패당은 선행《정권》과 마찬가지로 《북에 끌려다닌 남북관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고아대면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거부하고 외세와의 반공화국대결공조에 발광적으로 매달리고있다. 그 무슨 《북핵위협》을 떠들며 반공화국핵소동을 끈덕지게 감행하는 한편 동족의 사상과 제도를 악랄하게 헐뜯는 《인권》모략소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다. 한편 미국과 함께 북침핵선제공격을 노린 전쟁연습소동에 계속 열을 올려 조선반도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초긴장상태를 조성하고있다. 얼마후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응원단이 참가하지 못하게 된것도 북남관계개선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 괴뢰패당의 반통일적인 《대북정책》의 필연적산물이다.

현실은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이 북남관계를 개선하기는 고사하고 그를 엄중히 해치는 기본요인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 각계는 물론 해내외의 온 겨레가 괴뢰들의 동족대결책동을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을 철회하고 북남관계개선에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는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대결정책의 철회는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다.

남조선당국의 대결정책은 외세의 대조선침략정책에 철저히 복종되는 종속물에 불과한것으로서 우리 민족에게 백해무익하다. 괴뢰들이 외세의 침략적리익을 위해 대결정책에 매달리면서 북남관계를 해치는것은 용납 못할 민족반역행위이다. 남조선에서 대결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파국에 처한 현 북남관계에서 달라질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남사이의 신뢰와 대화를 진실로 바란다면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을 포기하는 실제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력사적인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비롯한 북남합의들을 존중하고 그 리행에 나서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이미 마련된 북남합의들을 무시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운운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성실히 리행해나가는것은 북남관계에 조성된 현 난국을 타개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는 길이다. 대화를 하여도 북남선언들을 리행하기 위한 대화를 하고 회담을 하여도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실질적으로 가시기 위한 회담을 하여야 한다.

북과 남의 정치군사적대결을 조장하고 격화시키는 온갖 장벽들을 제거하고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는것은 현실적인 문제이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가로막는 반통일적인 《5.24조치》를 철회하고 금강산관광재개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것은 남조선 각계의 주장이다. 남조선당국은 각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5.24조치》의 해제와 금강산관광재개라는 실천적인 조치로 북남관계개선의 장애를 스스로 거두어야 한다.

북남관계문제를 해결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해소하는데서 주인은 전체 조선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해치면서 반통일대결정책에 악랄하게 매달리는 괴뢰보수패당의 반민족적망동을 준렬히 폭로단죄하며 그것을 민족단합의 힘으로 단호히 짓부시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투쟁을 계속 힘차게 전개해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반통일세력의 동족대결책동을 짓부시며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신심드높이 떨쳐나서야 한다.

남조선괴뢰들이 시대의 요구와 온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면서 한사코 대결정책을 고집하는것은 파멸의 운명을 재촉하는 어리석은짓이다. 력사와 민족은 괴뢰패당의 반통일적죄악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리 성 호

온갖 범죄가 성행하는 인간생지옥

지금 남조선괴뢰들은 입만 벌리면 《북인권》이 어쩌니저쩌니 하는 나발을 불어대고있다. 하다면 인권문제를 밥먹듯 외워대는 현 괴뢰집권세력이 남조선에서 어떤 험악한 실태를 빚어내고있는가 하는것을 보기로 하자.

남조선이 사기와 협잡, 살인과 폭력이 판을 치고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며 온갖 패륜패덕이 성행하는 사람 못살 곳이라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한 남조선에서 지금 각종 범죄현상이 더욱 만연되여 커다란 사회적골치거리로 되고있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가족살해사건, 어린이유괴살인사건, 련쇄살인사건 등 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끔찍한 살인범죄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부산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마구 때려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이틀동안이나 내버려둔 사건, 울산에서 이붓어머니가 밖에 나가 놀게 해달라는 8살짜리 딸애를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때려 살해한 사건, 재산을 노리고 어머니와 친형을 무참하게 살해한 인천살인사건 등은 남조선에서 살인범죄행위가 얼마나 우심한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정신분렬증에 걸린 사람들에 의해 세상을 경악케 하는 《묻지마범죄》라는것도 도처에서 저질러지고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평등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최악의 상황에로 몰아가는 사회악부터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현재 남조선에서는 주민들의 80%가 극심한 생활난으로 허덕이고있으며 특히 20대의 청년들은 대학등록금과 취직문제로, 다른 사람들은 살림집마련, 생활보장문제 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있다. 절대다수의 주민들은 아무리 정직하게 일을 하고 노력해도 극소수 부유층에 눌리워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이때문에 사람들속에서는 자기의 생활처지에 대한 좌절감이 높아지고 이것이 차츰 사회에 대한 분노로 바뀌면서 나중에는 범죄에로까지 이어지고있다. 경상북도에서는 설을 쇠러 고향에 내려온 아들이 소리를 내며 식사를 한다고 핀잔을 주는 어머니를 무작정 목졸라 살해하였으며 대전에서는 젊은 남자가 같은 아빠트에서 사는 녀자가 자기를 놀려댔다고 하여 칼로 찔러죽이였다. 분을 참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건물에 불을 놓는 현상들도 나타나고있다. 한편 인터네트상에서의 언쟁이 칼부림과 살인으로까지 번져지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청소년범죄가 급격히 늘어나 사회적불안을 심화시키고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룡인시에서는 10대의 청소년이 한 녀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한 방법으로 란도질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성행하는 학교폭력으로 학생들과 학부형들은 근심속에 시달리고있다. 이를 계기로 남조선에서는 돈을 받고 학교폭력을 막아주겠다는 업체들이 생겨나고있다.

미성년범죄도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얼마전 부산에서 한 소년이 같이 생활하고있는 친구를 매일과 같이 구타하고 자기와 사기범죄행위를 함께 저지를것을 강박하고 나중에는 협박까지 하였다고 한다.

《나만 잘살면 된다.》는 극도의 개인리기주의적인 관점과 약육강식의 승냥이법칙이 지배하고 괴뢰집권층에 의해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짓밟히는 썩어빠진 남조선사회에서 각종 범죄행위가 성행하는것은 막을수 없는 현상이다. 사실들은 남조선사회야말로 사람들의 자주적존엄은 고사하고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유지할수 없는 인간생지옥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을 외면하면서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실현해보려는 괴뢰패당의 《인권》모략소동은 절대로 통할수 없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반인민적악정으로 사회를 사람 못살 세상으로 만들고있는 현 괴뢰집권세력에 저주를 퍼부으면서 썩은 사회를 반드시 갈아엎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본사기자 심 철 영

평화를 위협하는 미싸일방위체계구축책동에 항의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구축책동에 항의하여 5일 괴뢰국방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최근 언론들을 통해 미국이 미싸일방위체계의 핵심인 고고도요격미싸일 《THAAD》를 평택미군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있으며 이외에 남조선도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가로 배치하는것을 검토하고있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이 《THAAD》를 남조선에 끌어들이기 위해 《북의 위협》에 대해 과장, 외곡하고있지만 주되는 목적은 저들의 군사전략실현을 위한 미싸일방위체계구축에 있다고 비난하였다.

《THAAD》가 배치되면 남조선은 미국미싸일방위체계의 전초기지로 되며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더 깊숙이 빠져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 *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구축책동을 규탄하여 2일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1일 언론들을 통해 미국이 미싸일방위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고고도요격미싸일 《THAAD》의 남조선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미 부지선정까지 끝낸 사실이 보도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미국이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이 남북사이의 군사적대치와는 관련이 없고 《방어》를 위한것이라고 하고있지만 본질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비경쟁의 확대에 있다고 폭로하였다.

특히 《THAAD》가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되여있는 《X-밴드》레이다는 탐지거리가 1 000㎞에 이르는것으로서 그의 남조선배치는 북은 물론 세계적인 미싸일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한데 미국의 흉심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격분을 금할수 없는것은 이 위험천만한 고고도요격미싸일배치와 관련하여 현 《정권》이 국민의 눈을 속여가며 아닌보살하고있는것이라고 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죄악으로 가득찬 미제침략군의 강점사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을 불법적으로 강점한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69년에 이르는 강점사는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한 죄악으로 가득차있다.

불안과 긴장을 조성하며 이 땅에 항시적인 전쟁위협을 가져온것은 미제침략군의 죄행중에서 가장 큰 죄행이다.

강점 첫날부터 남조선전역에서 군정통치를 실시한 미제는 공화국북반부지역마저 타고앉을 흉심밑에 괴뢰군을 대대적으로 무장시키며 전쟁불구름을 몰아오기 시작하였다.

미제의 적극적인 부추김에 의해 1948년에 이르러 괴뢰군의 병력은 무려 10만 7 000여명에 달하였으며 20여만명의 청장년들을 긁어모은 청년방위대라는 반군사조직까지 생겨났다.

그후에도 리승만괴뢰도당에게 1억 1 000만US$의 군사원조를 주고 각종 화력무기, 함정, 비행기, 자동차, 지뢰 등 방대한 전쟁장비들을 넘겨주었다.

면밀한 준비밑에 전쟁을 도발하였으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해 패배한데서 교훈을 찾을 대신 침략군을 남조선에 그대로 눌러앉히고 새 전쟁도발책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

정전협정이 발효된지 반시간도 안되여 우리측을 향해 기관총사격을 가하고 그로부터 몇시간동안에 수십분간격으로 포탄을 쏘아댄것을 시작으로 우리에 대한 무장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사건, 1994년 12월 17일 미군직승기격추사건 그리고 무장인원들의 침입을 비롯하여 미제침략군의 도발행위는 년대와 년대를 이어 계속되였다.

침략전쟁준비를 위해 미제는 정전협정체결직후부터 각종 공격무기들을 련이어 끌어들였으며 1950년대말부터 핵무기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배치하였다.

대륙간탄도미싸일과 핵잠수함, 전략핵폭격기 등 《3대핵타격수단》들, 핵항공모함들을 끌어들이며 해마다 각이한 명칭의 북침합동군사연습에 광분함으로써 조선반도는 언제 한번 평화로운 때가 없었다.

오늘날 북남관계가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 근원도 미제침략군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자주, 평화통일에로 지향한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과 투쟁에 의하여 북과 남사이에는 그동안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여러차례의 격동적인 계기들이 마련되군 하였다.

하지만 미제는 그때마다 강점군을 내세워 우리 민족의 거세찬 진군을 막아나섰다.

민족통일의 대원칙인 7.4공동성명이 발표되였을 때 미제는 악명높은 《포커스 레티너》, 《림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으로 전쟁기운을 고조시켰다.

1980년대 북남사이 적십자회담이 진행되고 큰물피해를 입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우리의 지성어린 구호물자가 전달되였으며 예술단, 고향방문단이 서로 래왕하며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였을 때에는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전쟁도발책동을 일층 강화하였다.

분렬사상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자 《전면재검토》니 뭐니 하며 시비중상하였다.

10.4선언이 채택되였을 때에는 《북방한계선문제는 남북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유엔군사령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느니, 《대규모경제협력은 6자회담의 효과를 감소시킬것》이라느니 하며 선언리행을 가로막았다.

우리 민족끼리 추진하는 철도, 도로련결과 개성공업지구건설문제를 두고 《군사분계선 월선과 관련해서는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철길을 련결할 때에는 지뢰를 해제하면 《북의 땅크들이 쳐나올수 있다.》고 위협하였고 남조선인민들이 금강산을 관광할 때에는 《관광료가 군사비로 사용된다.》고 시비질해나섰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과 관련한 합의를 이룩해나가는 그 시각에 핵전략폭격기편대들을 끌어들여 우리에 대한 핵타격연습에 돌아쳤으며 북남사이 비방중상을 중지하고 고위급접촉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합의한지 보름도 안되여 대규모 침략전쟁연습으로 그 모든것을 휴지장으로 만들어놓는 등 강점군의 죄행은 실로 엄중하다.

미제침략군이 온 남녘땅을 남조선인민들의 피로 물들인 천인공노할 죄악은 오늘도 우리 민족의 피를 끓게 한다.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미제의 피비린 살륙만행이 도처에서 감행되였다.

화순탄광로동자들을 중무장한 병력과 비행기, 땅크까지 내몰아 살륙하고 10월인민항쟁참가자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것은 강점초기 학살죄행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1948년 제주도에서 4.3봉기가 일어나자 《제주도땅이 필요하지 제주도민은 필요치 않다.》고 떠벌이며 무려 7만여명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단독선거》, 려수군인폭동 등 여러 계기들마다 미제의 피비린 살륙만행이 그칠새 없었으며 그 살륙전은 전쟁시기에도 이어져 서울과 인천, 충청북도 영동군 로근리 등 온 남녘땅이 침략군의 살륙마당으로 되였다.

1980년 5월에는 광주인민봉기를 진압하는것으로 살륙전을 이어갔다.

집단적살륙만행으로도 성차지 않아 남조선인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며 온갖 범죄적만행을 다하였다.

1947년 호남선렬차안에서 어린아이를 업은 3명의 조선녀성들을 륜간하고 전쟁때 서울에서 산모를 륜간한데 이어 또 다른 집에 가서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딸을 릉욕한 추악한 행위들, 1959년 의정부녀인뺑끼칠사건, 1990년대 윤금이, 리기순, 허주연살해사건들, 지난해 지하철도전동차안에서 20대 녀성을 집단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을 비롯하여 미제침략군이 남조선녀성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살인 및 인권유린행위는 우리 민족의 끝없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최근년간에만도 남조선주민을 총으로 위협하다 못해 집단구타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몽둥이로 까눕혔는가 하면 10대 녀학생들과 40대 녀성을 성폭행하고 택시운전사 지어 로인까지 폭행하였으며 방화도 서슴지 않는 등 미제침략군의 범죄행위는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한 후 지금까지 저지른 살인, 강도, 강간을 비롯한 각종 범죄행위가 무려 23만건이상에 달하고있는 사실은 강점군의 죄악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뿐만아니라 온 남녘땅에 마약을 퍼뜨리고 주둔지의 환경을 극도로 파괴, 오염시키는 등 미제침략군의 죄행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강점으로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한 미제침략군은 하루빨리 이 땅에서 물러가야 하며 그것만이 자주, 평화통일의 지름길이라는것은 지나온 력사가 실증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세계구급처치의 날

오늘은 세계구급처치의 날이다.

세계적으로 해마다 9월 두번째주 토요일을 세계구급처치의 날로 기념하고있다. 이날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에 대응한 즉시적인 구급처치지식과 기술을 광범히 소개선전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은 지난 100여년동안 구급처치양성 및 봉사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 2012년에만도 세계적으로 77개 나라 적십자 및 적반월단체들이 1 400만명의 사람들에게 구급처치지식과 기술을 배워주었다.

긴급정황시 구급처치는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자료에 의하면 자연재해와 사고발생후 살아남은 사람들의 90%가 현지주민들의 도움이 있었기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긴급정황이 발생한 현장에 전문의료일군들이 적거나 없다고 하더라도 현지의 주민들이 초보적인 구급처치기술에 대한 일반상식을 가지고있어도 구급치료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의료상방조를 줄수 있고 많은 생명을 구원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결과 자연재해와 사고에 의한 부상자와 사망자도 점차 늘어나고있다.

현실은 인명피해를 제때에 막고 부상자와 사망자를 줄이는데서 관건적으로 나서는 구급처치활동을 보다 강화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올해 세계구급처치의 날 주제는 《구급처치영웅이 되자》이다.

세계구급처치의 날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급처치방법을 배워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이바지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고있다.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를 비롯한 많은 적십자 및 적반월단체들이 세계구급처치의 날의 주제에 맞게 일반주민들에게 구급처치방법을 널리 소개선전보급하고있다.

본사기자

이라크사태로 궁지에 빠져들고있는 미국

지금 이라크의 북부와 주변지역이 이슬람교국가의 활동무대로 전변되고있다. 이슬람교국가는 넓은 지역을 종횡무진하면서 군사적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미국에 위협적인 신호들을 계속 보내고있다.

지난 8월 이슬람교국가의 무장세력은 자기들이 붙잡은 한 미국인기자를 목을 베여 죽였다. 이어 9월초에 또 다른 한명의 미국인기자를 같은 방법으로 처형하였다.

이슬람교국가는 두명의 미국인기자들을 살해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모두 공개하였다. 이 동영상을 분석한 미국의 정보기관은 그것이 진짜라는 결론을 내렸다.

알려진데 의하면 처음에 살해된 미국인기자는 수리아에서 5년동안 활동하였으며 2년전에 실종되였었다. 두번째로 살해된 미국인기자도 지난해 8월 수리아에서 한 무장집단에 의해 랍치된것으로 알려져있었다.

이슬람교국가가 자행한 살인사건은 사람들을 공포와 경악의 감정에 휩싸이게 하고있다.

국제문제전문가들은 이슬람교국가가 왜 군인이 아닌 미국인기자들을 목을 베여 죽이고 그를 촬영한 동영상을 뻐젓이 공개하였는가에 대해 주목을 돌리고있다.

그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슬람교국가의 행위는 중동의 넓은 지역에 순니파국가를 세우려는 자기들의 군사적활동을 가로막아나서고있는 미국에 대한 일종의 경고이라는것이다. 그것은 첫 미국인기자를 살해하는 4분짜리 동영상의 제목이 《미국에 보내는 메쎄지》로 되여있는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이슬람교국가의 이런 행위로 하여 오바마정권은 진퇴량난의 처지에 빠져들고있다.

이라크에서 벌어지고있는 사태는 올해 11월에 진행될 국회중간선거에서 많은 의석을 따내려는 오바마의 민주당세력에 부정적영향을 미칠수 있다.

미국의 대다수 선거자들은 미군의 해외파병을 완강히 반대하고있다. 8년간에 걸치는 이라크전쟁에서 혼쌀이 났기때문이다. 수많은 사망자들을 매장하고 부상자들을 치료하는데만도 숱한 돈을 쓰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로부터 오바마정권은 될수록 이라크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 하고있다. 만일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세력이 패할수 있기때문이다. 반대로 공화당세력은 이슬람교국가의 군사적공세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고아대고있다.

그런데로부터 오바마정권이 찾은 출로가 바로 이슬람교국가에 대한 공중폭격이였다. 미군의 이라크공중폭격조치는 외신들이 《오바마정권의 피로운 결단》이였다고 평할 정도로 힘들게 취해진것이였다. 지난 8월 7일에 오바마가 내린 명령에 따라 페르샤만에 투입된 미항공모함에서 날아오른 전투폭격기들과 무인공격기들이 이슬람교국가의 주요기지들을 련속 타격하고있다.

이런 속에서 이슬람교국가가 두명의 미국인기자들을 살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내에서 복닥소동이 일어나고있다. 오바마정권은 전쟁을 반대하는 선거자들과 보다 강력한 군사적공세를 들이대야 한다는 공화당의 새짬에 끼여 갈팡질팡하고있다.

이슬람교국가의 군사적공세는 미국의 대이라크정책이 실패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자국의 《안전보장》이라는 간판밑에 이라크전쟁을 도발하고 순니파중심의 싸담 후쎄인정권을 제거해버렸다. 미국식 《민주주의》를 부단히 이식하였지만 이라크에서는 부작용만 심하게 나타났다. 이라크에 수립된 시아파정권의 차별정책과 미국이 부추긴 교파간 대립의 희생물로 된 순니파속에서 급진적인 무장집단이 생겨나고 이슬람교국가가 선포되였다. 이 집단은 시아파에 대한 배타주의적경향과 반미감정을 공공연히 드러내고있다.

결국 미국이 숱한 미군병사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이라크전쟁을 감행한 《공적》이 물거품으로 되고말았다. 이슬람교국가의 전과확대는 오바마정권이 떠든 이라크에서의 미국의 《승리》가 한갖 허상에 불과한것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이슬람교국가가 미국인기자들을 처참하게 살해한 사건은 앞으로 이 집단이 2001년의 9.11사건이나 2013년의 보스톤폭탄테로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행위들을 서슴없이 저지를수도 있다는것을 시사하고있다.

미국이 이슬람교국가를 없애버린다고 해도 골치거리로 된다. 왜냐하면 수리아의 적지 않은 지역을 차지한 이슬람교국가가 없어지는 경우 그것이 수리아를 거꾸로 도와주는 격으로 되기때문이다.

이라크사태는 또한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의 파산을 예고해주고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목적의 하나가 바로 그 무력의 과반수를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돌리기 위해서였다. 오바마정권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군사적으로 틀어쥘 때만이 세계를 제패할수 있다고 보고있다.

그런데 이슬람교국가에 의해 이라크정세가 긴박해지고있다. 미국은 할수없이 페르샤만으로 항공모함을 투입하였고 이라크정부군을 지휘할 수백명의 미군사고문단을 들이밀었다.

우크라이나사태로 하여 유럽주둔 미군무력을 강화해야 하는판에 중동지역에도 더 많은 미군무력을 들이밀지 않으면 안될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그렇게 되는 경우 오바마정권이 내놓은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이 빈말공부로 될수 있다.

싸움 잘하는 놈 매맞아죽는다고 미국이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되였다. 산지사방에서 전쟁의 불집을 터뜨린 미국은 그 불길에 타죽게 되여있다.

본사기자 리 경 수

적들의 분렬리간책동 단죄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가 7일 한 담화석상에서 적들의 분렬리간책동을 단죄하였다.

적들이 이슬람교나라들사이에 불신을 조성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는데 대해 까밝히고 그는 이것은 팔레스티나문제에 대한 이슬람교도들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고 유태복고주의정권의 리익을 옹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는 팔레스티나문제는 이슬람교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스라엘의 만행 규탄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있다.

8월 25일 이스라엘군은 이 지대에 여러차례의 공습을 가하여 15명의 팔레스티나인을 살해하고 25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공습만행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항의를 불러일으키고있다.

또한 인디아의 한 이슬람교지도자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이 가자지대를 침공하여 수천명의 무고한 팔레스티나인들을 살해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국제법을 위반하는 란폭한 범죄행위로 락인하였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만행은 미국의 비호밑에 감행되고있다고 그는 폭로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자연피해

—베루의 남부지역에서 8월 24일 리히터척도로 7의 강한 지진이 발생하였다.

진원은 그 부근 땅속 58.87㎞ 되는 곳에 있었다.

지진으로 부상자들이 발생하였으며 살림집과 병원을 비롯한 19채의 건물이 파괴되였다.

정부에서 긴급구제조치를 취하고있다.

—일본의 히로시마현에서 얼마전 무더기비가 내려 피해를 입었다.

무더기비로 큰물과 흙사태가 나면서 3명이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행방불명되였다. 또한 살림집들이 파괴되고 도로들이 물에 잠기는 등 혼란이 조성되였다.

—이딸리아의 북부지역에서 최근 두차례의 회오리바람이 휩쓸어 피해를 입었다.

무더기비를 동반한 회오리바람으로 살림집들이 파괴되고 강물이 넘어나 도로들이 물에 잠겼으며 자동차와 렬차운행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얼마전 산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산불로 500ac(에이커)의 산림이 불타버리고 1만 3 000명의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브라질의 싼 빠울로에서 7일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로 600채의 살림집이 불타고 약 2 500명의 주민들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

피해를 가시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이딸리아에서 화산분출

에볼라방지투쟁에서 협조 호소

아프리카동맹위원회 위원장 느코사자나 들라미니 주마가 8일 에볼라에 관한 동맹 집행리사회 긴급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에볼라방지투쟁에서 지역적협조를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에볼라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대륙의 보건체계들을 개선하며 아프리카질병통제 및 예방쎈터운영준비사업을 추진시켜 이 비루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특히 대륙나라들이 에볼라피해를 가장 심하게 입은 나라들을 도와주는데서 협력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도이췰란드인들

도이췰란드에서 경제침체의 후과로 많은 주민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있다.

최근 이 나라에서 발표된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80%이상이 재정형편악화로 생활이 더욱 곤난해지고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ㄱ-41143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